

↑ 코스피 2623.29 (+26.38)	↓ 코스닥 770.26 (-0.72)
↓ 금리 (연율) 2.938 (-0.009)	↑ 환율 (원/달러) 1357.85 (+8.35)

‘실적부진’ 재계, 칼바람 분다... 고강도 인적쇄신 예고

삼성전자, 내달 인사 가능성
반도체 사장단 개편 불가피
LED사업 철수 등 사업 개편도
‘脫통신’ 통신사, 구조 효율화
KT, 6000명규모 인력 대수술
SKT, 희망퇴직 유도 격려금 ↑

재계 주요 그룹들이 조직개편을 강화하고 고강도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전자부터 통신사들까지 비핵심 사업을 철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부진 여파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반성문’을 내놓은 만큼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네트워크 부문 인력을 재배치하고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6000명 규모의 인력구조 대수술에 들어간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정기인사를 한달 가량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12월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해 왔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빠른 11월 말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부진 여파로 전 부회장이 이례적인 반성문을 발표했던 만큼, 대대적인 내부 물갈이를 통해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 관측이 높다.



군, 화력대기태세 강화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해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시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중심 인력 손질

삼성전자의 연말 조직개편은 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사업이 고전한 영향이 실적 악화 등의 원인으로 꼽힌 만큼, 반도체 사장단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

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현재 반도체사업부 사장단은 전영현 부회장을 필두로 이정배 메모리사업부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장, 남석우 제조&기술 담당 사장,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등이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사업 개편 작업에도 돌입했다는 점이다. 비핵심 분야인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LED 사업팀은 정리수순을 밟고 있다. 기존의 LED 사업 인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수뇌부를 향한 책임론도 고강도 쇄신 작업에 힘을 실고 있다. 삼성의 최근 위기에는 ‘리더십 부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재계는 내다봤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의 위기는 단기간에 실적 개선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인사 때 이재용 회장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사 희망퇴직 칼바람... KT 6000여명 조정

통신사들도 최근 희망퇴직과 자회사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반려동물 위한 헬스케어

<메트로경제>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새로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치료제가 동물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기조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강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기 애니멀프리이니셔티브 대표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영풍·MBK, 고려아연 지분 5% 이상 추가 확보

MBK연합,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고려아연 “임의적립금 사용은 배임”

MBK파트너스와 영풍(이하 MBK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

14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첫 번째 분수령인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결과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 MBK연합은 추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기존 약 33%의 지분에 더해 총 3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달 13일 공개매수에 돌입한

지 한달 만이다. MBK연합은 당초 최소 6.98%에서 최대 14.61%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달성에는 실패했다.

MBK연합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30%대 후반으로 늘리고 추후 이사회 장악, 주주총회 표 대결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고려아연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인만큼 타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이 높아져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MBK연합의 공개매수에 맞서 영

원권 수성에 나선 고려아연은 이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중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MBK연합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진행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을 활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

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이또한 지난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K연합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없는 법적 공방을 만들어 수많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여러 차례 경고한 시장교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李 “조국, 부산 지원유세 감사... 야권 후보 승리, 매서운 민심 회초리” /사진 뉴스스
- ▲한동훈 김건희 라인 쇄신 요구에... 권성동 “대표실부터 인적 쇄신하라”

- ▲김재원,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신중해야... 보수 분열 두려움”
- ▲대통령실 “용산엔 오직 대통령 라인 뿐... 여사라인이 어디 있나”



- ▲오세훈 “명태균, 울음 운운 가소롭다... 대가 치를 것” /사진 뉴스스
-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군 “오늘도 폭파 가능”

‘수직농장’ 농지로 규정… 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해 진다

규제혁신 과제 50개 확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시대 뒤떨어진 낡은 규제 혁파로 농정 3대 전환, 농촌 구조혁신 가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수직농장 규제완화, 예비청년농 대상 농기계 임대 등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15일 서울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조성된 수직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라고 강조했다.

먼저 진입·입지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한다. 또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

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뒤 설치 가능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이 수직농장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新)산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알권리 보장 및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또는 정부24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휴대폰 앱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련해서는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외식업체 식재료 공

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걸림돌도 완화한다.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에 대해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에 농업인만 가능했던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또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가족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를 비롯해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체코 원전, 금융특혜 아냐… 바라카 보다 사업비 높아”

〈UAE 원전 사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출신용기관, 기본적 룰 있어 한국도 타국과 같은조건 경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금융지원 논란과 관련 “수출신용은 당연히 해야되는 역할인데, 이를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줘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보가 작년에 제공한 수출신용이 245조원쯤 되고, 수출입은행이 약 77조원 정도 제공했는데, 그게 기반이 돼 역대 최대 무역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협약을 언급하며 “전세계 OECD 메이저 국가 수출신용기관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 룰이 만들어져있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신용기관들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 수출신용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국회 가서 거둬 말씀드렸지만 문서에도 써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문서 보여드렸다”며 “재무적이나 경제적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시했는데, 그런 문서를 들고와서 부

당한 금융지원이라고 하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을 ‘덤핑 수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폄하할 일이 정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은) 바라카 원전사업비와 비교해도 체코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는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원전이 덤핑수주라면) 삼성이나 LG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순

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세안과)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아시아는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 무역 투자의 두번째 카운터파트너다. 중미 사이에 끼이고,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안보 정책을 보면 시장이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전략 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필리핀과 체결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MOU에 대해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설비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한수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바탄원전 참여에 대한)경제성 등이 나오면 필리핀 정부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가지 단계에 걸쳐 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지금 실무진에서 인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

9.15.~12.14.



QR코드 스캔

· 부정수급 · 불법 브로커 ·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회피 ·

24시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 1551-5777



유니클로, 역대급 실적 행진... 韓 점포확대 등 경쟁력 강화

올해 3조엔 이상 매출 달성
국내 최대규모 롯데월드점 오픈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강화



유니클로 롯데월드몰점 입구에 위치한 대형 로고 /유니클로

일본 캐주얼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 성장세에 따라 한국 시장 공략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3년 연속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0일 유니클로 모회사 페스트리테일링이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실적발표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3조1038억엔이라는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성과를 보였다. 유니클로는 전년 대비 31% 상승한 영업이익의 5009억엔을 달성했다.

엔화 약세가 기업을 성장을 견인했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3조엔이 넘는 매출액은 유니클로에게 이례적인 성과

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출액이 처음으로 3조엔을 넘어섰다. 유니클로 CEO는 “연간 매출 10조엔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프알엘코리아의 2022

년 9월부터 2023년 8월의 회계연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921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412억원을 기록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일본 모기업인 페스트 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의 합작 법인으로, 2005년 한국에 첫 진출

한 뒤 현재 3343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한일 분쟁에서 비롯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인 ‘노노재팬’이 벌어지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 역시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지난 2020년 에프알엘코리아의 매출은 6298억원에서 2021년 5824억원으로 감소했다. 점포 수 역시 2019년 말 기준 187개였던 점포가 143개로 준 바 있다.

앞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유니클로가 내놓은 공략은 점포 수 확대다. 유니클로는 지난 9월 잠실 롯데월드몰에 국내 최대 규모 매장인 유니클로 롯데월드점을 오픈했다. 이어 유니클로 동대문점, 유니클로 일산 덕이점, 유니클로 롯데 광고점을 추가로 개점했다. 오는 18일과 31일에는 유니클로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유니클로 홈플러스 상봉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도 한국 시장 공략책 중 하나라는 게 유니

클로 측의 설명이다. O2O 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예약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를 체험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유니클로는 지난 5일 자체 커뮤니티 패션 플랫폼 ‘스타일헨트’를 국내 첫 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니클로는 특수 기능성 소재인 퍼프테크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퍼프테크는 유니클로와 일본 화학 소재 기업인 도레이가 함께 제작한 고기능성 섬유다. 섬유의 일부를 머리카락 5분의 1 크기로 굵고 가늘게 제작해 발수기능을 추가하고, 충전재 빠짐 기능을 보완했다는 게 유니클로 측의 설명이다.

패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질로 인해 소비자들이 스파(SPA) 브랜드를 많이 찾는 경향 자체가 유니클로 성장에 한 몫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삼바, ‘에스-하이콘’ 공개... CDO 사업 박차

(위탁개발)

제형 개발역량 확장... 플랫폼 고도화
고농도 의약품 시장 수요 선제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농도 제형 개발 플랫폼인 ‘에스-하이콘(S-HiCon)’을 론칭하며 위탁개발(CDO) 사업을 더욱 확장한다. 이번 론칭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출시한 CDO 플랫폼은 4개로 늘어났으며, 총 9개의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1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바이오 재팬(BIO JAPAN 2024)’에서 ‘에스-하이콘’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증가하는 고농도 의약품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스-하이콘’을 출시했다. 고농도 제형 의약품은 저농도 제형 의약품 대비 동일한 약효를 내는 데에 필요한 약물 투여 용량이 적어 피하주사제 및 안구투여 주사제 개발 시 활용된다. 보관 및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농도 제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점도가 증가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점도 및 수소이온 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부형제 선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200mg/ml 이상의 초고농도 제형 개발 데이터 축적에 성공했다. 통상 업계에서 150mg/ml 이상의 제형을 고농도 제형, 200mg/ml 이상의 제형을 초고농도 제형으로 간주한다.

또한 본격적인 제형 개발 단계 진입에 앞서, 고객사가 원하는 농도까지 농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농도 게이트 체크 단계’를 추가해 고농도 제형 개발

실패 리스크를 감소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스-하이콘’을 통해 저농도부터 초고농도까지 제형 개발 역량을 확장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CD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스-하이콘’이 공개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출시한 CDO 플랫폼은 4개로 늘어났다. 지난 9월 ‘2024 바이오 프로세스 인터내셔널’에서 항체의 항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에스-에이퓨초’와 고품질의 단백질 생산을 지원 하는 ‘에스-옵티차지’를 공개했으며, 6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는 고농도 세포 배양 개발 지원 플랫폼 ‘에스-텐시파이’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9년 CDO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 확장은 물론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 42개였던 CDO 제품수는 지난해 말 112개까지 2.5배 가량 늘어났고, 지난 2분기 기준 120개로 증가한 상태다. /이세경 기자 seilee@

尹 대통령,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내정

(前 대통령비서실장)

한중관계 개선 역할 기대



과정을 밟았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영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말 물러났다. 정부부처 근무 당시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중국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 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또한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학 석사

윤 대통령이 전직 비서실장 출신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라는 평가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회복세로 들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게 한중관계 개선에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5만명... 8개월 연속 상승폭 둔화

종합건설업 14개월째 감소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건설업 가입자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3%(19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1

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4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줄어 들면서 14개월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12월까지 감소를 이어갔다. 지난 1월 2000명 감소로 소폭 반등했으나, 2월부터 가입자 하락이 계속되며 8월에는 1만3000명이 감소했

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 모피 등은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9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비용 효율화 통해 AI 등 신사업 뒷받침

>> 1면 ‘실적부진 재계...’서 계속

최근 탈통신을 선언하고 인공지능(AI) 신사업을 통해 성장 돌파구를 마련키로 선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한편 비주력 사업의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시도에 나서고 있는 것. 신사업의 수익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막대해 비용 효율화를 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특히 KT는 김영섭 KT 대표 취임 이후 첫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신설 법인 2곳의 설립 안건을 의결한다. 신설 자회사는 KT오에스피(KT OSP)와 KT피앤엠(KT P&M)이다. 두 곳 모두 KT 지분 100% 자회사다. 내년 1월 1일자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KT는 설립될 두 자회사에 KT 본사 인력 3780여명 가량을 전출한다는 방침이다. KT는 특별 희망퇴직도 단행한다. 이는 지난해 김 대표 취임 후 첫 희망퇴직이다. 대상은 실근속 10년 이상 직원 가운데 정년 1년 이상 남은 직원이다. KT의 이번 인력 조정 규모는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도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던 휴직 제도인 ‘넥스트 커리어’ 퇴직 격려금 최대 금액을 종전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것, 넥스트 커리어는 희망자가 2년간 유급 휴직을 하고 창업 등 다양한 시도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직 또는 퇴직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두고 인력 조정의 선제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2030 주식 팔아 집 사고, 40대는 집 팔아 상급지 갈아탔다

집값 상승에 주식·부동산 처분 매수

20·30대, 증여·상속 자금으로 매입 40대, 기존 부동산 처분해 상급지 이동

올해 들어 집값이 들쭉이면서 주식을 처분해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집을 사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는 '갈아타기'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20~30대가 주식에서 번 돈을 부동산에 썼다.

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연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주택 매수자는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중이 57.8%에 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시스

했다. 지난 2022년 27%에서 2023년 55.5%로 작년보다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투자목적보다는 집값 상승에 '갈아타기'에 따른 매매가 증가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다. 투기와

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집을 살 때는 물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올해 서울의 경우 매매 평균 가격을 감안하면 아파트 매수자 대부분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40대 매수자의 65.44%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갈아타기'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50대 이상도 50% 이상이 주택 매매를 위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택했다.

주식·채권을 팔아 집 사는데 쓰겠다고 하는 비율은 올해 1~8월 13.2%로 2022년 4%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비중이 각각 16.4%, 17%로 가장 높았다. 2022년에는 각각 3.7%, 6.6%에 불과했다. 40~50대 역시 주식 처분 계획을 밝힌 비율이 2022년 3.4%에서 올해

12.9%로 늘었다.

아직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한 20~30대의 경우 이전에도 '증여·상속'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올해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20대 41.8%, 30대 21.7%가 증여·상속 자금을 주택 구입에 썼다. 지난 2022년에는 각각 29.3%, 14.7%였다.

반면 임대인을 들여 주택 구입 자금을 충당하는 일명 '갭투자'는 감소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으로 매매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2022년 44.6%에서 올해 36.8%로 줄었다.

한편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8만969건 가운데 40대와 30대가 각각 2만7173건, 2만46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창용 “가계대출 급증 예측 못해… 정책혼선, 일정 책임 느껴”

〈한국은행 총재〉

0.25%p 인하, 부동산·가계부채 우려 내달 인하, 금융안정 상황 보고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시기와 관련해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를 인하할 경우) 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쉬었다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시기가 늦었는지, 빨랐는지”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까지 뛰자 금리를 인상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목표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3.1%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2.7% ▲6월 2.4% ▲7월 2.6%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자 금리인하를 고려했

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저도 일정 책임”

이날 이 총재는 7~8월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5~6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7~8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폭이 커졌던 부분은 예측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로 인해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에 혼선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F4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F4는 이 총재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분야 최고 수장들 간의 정책 협의체다.

앞서 금융위는 7월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로 미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면 부동산 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미뤄지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4월 5조원을 시작으로 5월 6조원 6월 5조 9000억원 7월 5조 4000억원, 8월 9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10월 스몰컷 “부동산 기대심리 조정 목적”

이날 이 총재는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의 질문에 대해 “스몰컷(0.25%p 인하)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0.5%p를 낮출 경우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부동산 수요층이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관망은 수준인데 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어려워, 잘 조정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11월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통위 6명중 5명은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간 금리를 묻는 질문에 3.2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yul15@

신보, 구상채권회수율 4.4% 불과… 보증사고 급증

올해 9월까지 구상채권 1627억 회수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원, 회수율 4.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강민국 국회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23년 2413억원, 2024년 162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구상채권 회수율 역시 2021년 8.7%,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2022년 7.8%, 2023년 5.9%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회수율은 4.4%로 2021년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1조원, 2022년 1.2조원, 2023년 2.0조원으로 지난 202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1.6조원에 달해 채권회수를 통한 신용보증기금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추심의 실적이 없으면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되는 채권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분의 1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어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증사고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승용 기자 tsy2665@

‘딤페이크’ 성착취물 피해학생 누적 814명

교육부, ‘딤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지난 1월부터 딤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이 누적 814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딤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7건의 피해 신고가 더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딤페이크 피해 학생은 누적 814명이다. 직전 조사 때인 4일 기준(804명)보다 10명 증가했다. 교원 33명, 직원 등도 3명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다 합해 850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학교 4건, 고등학교 2건, 초등학교 1건이 추가됐으며 피해자는 모두 학생이었다.

관할 교육청 등은 지난 1주 동안 총 10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이번에 신고된 사안 뿐 아니라 앞서 접수된 사안도 일부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 신고된 학교 딤페이크 피해는 누적 516건이다. 이 중 고등학교가 55%에 해당하는 284건을 차지했으며, 중학교 215건(41.7%), 초등학교 17건(3.3%) 순이다. 지금까지 전체 피해 누적 건(516건) 중 83.7%인 누적 432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아울러 성착취물 피해 사례 230건(44.6%)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디성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의뢰했다. 단,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착취물 삭제를 신청한 사례도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현진 기자 hj@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딛고, 비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든 도전과 꿈이, 가능성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AI 반도체부터
에너지 솔루션까지

SK가
미래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튼튼한 길이 되겠습니다

SK



INDUSTRIAL
SUSTAINABILITY
DIGITAL PLATFORM
GREEN TECHNOLOGY
ENERGY TRANSITION
CARBON MGMT
ADVANCED MATERIALS
INDUSTRIAL TRANSITION
SMR HYDROGEN-COMD
AI SERVICE PLATFORM
BIO·AI·BATTERY
ENERGY SOLUTION·HARVEST
FUTURE

김동연,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등 전임 이재명 의혹 해명

(경기도지사)

행안위 국감

국민연금 일산대교 운영권 강제 회수
김동연 "일산대교만 통행료 받아"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운영사 논쟁
민주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의혹 제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임 시절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에 여야 논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억여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징수해오다가, 이 대표 재임 시절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료화했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이뤄진 사업 시행자 시행 지정 공익 처분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이 손을 다시 들어줬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 70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경기도가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피해는 국민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나 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갖고 있다. 연금 수익률이 높아야지 보험 인상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온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안정화인데, 도민에게 통행 무료화를 하는 것은 좋지"라며 "국민 연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김동연 지사가) 재고를 하고 꼼꼼히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문제는 이렇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0여개 남짓

인데, 일산대교만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다른 시민에 비해 다른 대우를 받는다. 형평의 원리에 의해 전임 지사가 결정내린 듯 한데, 취지에 동감해서 법적 쟁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공약했다"며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된 듯하다. 여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를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 '이재명 눈치 보나'라는 지적에 "안 본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3년이 지났다. 3차례 지급돼 3조3000억원이 소요됐다"며 "그 중 용자가 2조원이다. 이 대표의 3조원 빚잔치에 경기도민에게 채무를 남기고 인천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약했다"며 "행정부를 잘 아는 김 지사는 전국민 25만원 일괄 지급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코나아이는 이 대표 재임 시절 이 대표의 측근이 근무하고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취임 후에 (코나아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가 "이 업체는 (2차 계약 때) 컨소시엄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모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다른 사람 눈치는 보지 않는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안 본다"고 강조했다.

◆ 野, 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질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해서 국가 사업인 고속도로 공사 노선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무 장관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며 김 지사에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나 여기에 얽혀있는 특혜와 외압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 지사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적 지위 없는 분"

"김 여사 라인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정부여당, 국민민심 맞게 쇄신 필요"
10·16 재·보궐선거 후 면담일정 조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라며 대통령실 내에 영부인의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청한 대상이 이른바 '한남동 라인(7인방)'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라인으로 추정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의 대상이 '한남동 7인방'을 지칭하느냐는 물음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대표는 '당에 어떤 쇄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치는 민심에 따르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보수정치가,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면서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도 있었고 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민의를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는 최근 당을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한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의혹을 사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까지 포함해서 말이다"라며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 기대를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 한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신뢰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일정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나눌 의제와 관련해 "(정해놓은)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변화쇄신 계기로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 대표의 의혹 제기기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딴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與 "공수처, 수사기관으로 존속 의문" 野 "尹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해달라"

법사위 국감

與 일각선 '공수처 폐지' 주장
野 명태균 씨 관련 집중 질의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편파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2주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 조사를 실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 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람(명 씨)이 3억6000만원어치 대통령에게 여론 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명씨의 실소유 의혹인 미래항공연구소가 수행한 불법 여론조사를 보시면 밝혀진 것만 8건에 해당한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신고한 여론조사가 24건인데 그중에서 8건이 불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DB(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유출해서 그 DB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가 되었고 대선 당시에 지지율 발표들이 모두 조작 의심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함께 이 여론 조작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기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윤도현 기자 yunbgh0611@



FACIAL RECOGNITION



ixi 챗봇

AI로 나만을 위한 맞춤 상담 제공



VOICE RECOGNITION



ixi 챗봇

김유별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에게 맞는 요금제 좀 추천해줄래?

김유별님의 데이터 사용량, 멤버십, 관심사를 분석하여 추천드릴게요.

AI 매칭 80%

데이터는 풍성하게, 요금은 저렴하게 맞춤형 혜택까지!

5G 프리미엄 레귤러 >

데이터 무제한 테더링 + 웨어러블

고마워! 이걸로 요금

VPN, PQC, Quantum Computing, Dedicated Line, Quantum Safe, AlphaKey, IDaaS

양자내성암호

세계최초 PQC 전용회선 상용화

AI로 통신생활을 바꾸고 있는 회사가 ● ● 공공기관의 보안기술까지 책임지고 있다

시기술의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GROWTH LEADING AX COMPANY

* ixi 챗봇 내 생성형 AI 기술 순차 적용 중

지방금융, 3분기 실적 맑음... '부동산 PF 구름' 걷히나

3대 지방금융 순익 전망치 합산액 전년동기비 5.9% 증가한 5153억
총당금 부담 줄고 이자이익 늘어
주담대 막차수요 흡수, 성장 기여
부동산PF 정상화 따라 4분기 기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가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일제히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에 악영향을 줬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여파가 일부 잦아들면서 총당금 부담이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의 올 3분기 순이익(지배주주 기준 당기순이익) 전망치 합산액은 총 51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4866억원 대비 5.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주사별로는 DGB금융이 1230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돼 전년 대비 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BNK금융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2168억원, JB금융이 전년 대비 4.9% 성장한 1755억원의 실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DGB금융은 3분기 실적에서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DGB금융이 위치한 대구 iM뱅크 제2본점. /DGB금융

이는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잦아들면서 각 지방금융의 손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총당금 부담이 빠르게 감소한 영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증가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 고강도 총당금 적립을 압박했다. 고위험 PF 대출인 브릿지론(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고금리 대출) 취급이 잦았던 지방금융의 대손충당금 부담은 빠르게 상승했다.

각 금융지주사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3대 지방금융지주의 총당금 적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7%(3730억원) 증가한 1조940억원까지 늘

었다. 반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총당금 전입액은 같은 기간 24.5%(1조1700억원) 감소한 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각 지방금융이 지난해부터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고, 올 3분기 들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며 부동산 PF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총당금 부담이 빠르게 줄었다.

특히나 지난 2분기 말 기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4760억원의 총당금을 적립했던 DGB금융의 익스포저가 일부 해소되면서, 일각에서는 3분기 및 4분기에 총당금의 환입(총당금 필요가

해소됐을 때 해당 차액을 당기 수익으로 포함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요를 지방은행이 흡수한 것 또한 3대 지방금융의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앞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에 따라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막차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렸다.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지방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에도 기대가 모인다.

한 지방금융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지방금융들이 이자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에 따른 총당금 부담에 실적이 다소 주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부동산 PF 여파가 일부 해소된 만큼 하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신한카드

신한카드 어린이 초대 문화행사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신한카드가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어린이를 초대해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신한카드는 '제23회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올해 2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까지 약 19만여명이 참가했으며 카드업계 최장수 문화행사다. 이날 참가한 어린이들은 '행복한 우리 가족의 미래', '즐거운 우리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응모 작품은 한국미술협회 전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등 총 39개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특별 상금을 전달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미래 세대의 꿈과 상상력을 응원하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CU 신상품 6종 할인 GS25 고피자 51% ↓

우리카드가 '중앙해장'과 협업을 통해 CU 신상품 6종을 할인한다.

우리카드는 샐러드와 커피, 김장김치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중앙해장'과 콜라보한 신상품 6종과 인기 컵라면 13종을 30% 할인한다. 중앙해장 콜라보 신상품 6종은 ▲양해장국밥 ▲우동참볶음 ▲전골볶음밥 ▲양지곰탕밥 ▲우양지수육 ▲해장라면 등으로 구성했다.

GS25는 피자 프랜차이즈 '고피자'와 협업했다. 우리카드로 결제 시 전 메뉴 51%를 절감할 수 있다. 미트 치즈피자와 포테이토 베이컨 피자를 387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커피 전품목 5000원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시 30% 할인을 제공한다. 음료, 원집, 파우치, 스틱커피 등 포함되며 노브랜드 및 즉석커피 상품은 행사 상품에서 제외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유명 식당부터 프랜차이즈, 김장김치, 커피까지 모두 해결되는 편의점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지난달 서울 청약경쟁률 396.8대 1 '역대 최고'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서울' 소재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월간 기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역 브랜드 단지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려 청약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의 '2024년 9월 청약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이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 1로 가장 높았다. 3~4인 가족 수용 여부와 계약금 마련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85㎡ 초과



'디에이치대치에델루아' 투시도. /현대건설

는 511대 1, 60㎡이하는 29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9월 서울에서는 총 4개 단지가 공급됐다. 이 중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아'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5.6대 1로 37세대 공급에 3만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면적별로는 60㎡이하가 1205.2대 1로 경쟁률이 높았다.

분상제가 적용돼 인근에 위치한 레

미안대치팰리스의 비슷한 평형 매물과 비교해 약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다. 거주무기기간 2년, 전매제한 3년 등이 적용됨에도 수요자들이 몰렸다.

강남구 '청담르엘'도 경쟁률이 치열했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한 단지로 역시 주변의 청담자이 등에 비해 10억원 이상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관심이 높았다. 청담역 역세권, 한강변에 위치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5세대 분양에 나선 결과 총 5만 671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66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 1, 전용 84㎡가 5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노원구 '하우스토리센트럴포레'가 30.3대 1, 마포구 '마포에피트어바닉'이 10.1대 1로 뒤를 이었다. 모두 중소형 면적대로 공급됐으나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작용해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 청약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서울 소재 단지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아, 청담르엘 뿐만 아니라 래미안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역 내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아크로리츠카운티" 래미안원펜타스" 등이 연내 분양 계획 중이다"라며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당분간 청약시장의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신한은행-카뱅, 외환사업·자금시장 경쟁력 강화 맞손

FX트레이딩 거래 포괄적 업무협력

신한은행이 카카오펙과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펙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ATM을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레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방식 외환(FX)트레이딩 거래 관련 포괄적 업무 협력도 함께 체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카카오펙과 같은 혁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양행의 고객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은행-카카오펙 전략적 제휴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김광수 고객솔루션 그룹장(왼쪽)과 카카오펙 이형주 최고비즈니스책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韓, EV3 등 소형 전기차 대거 공개... 글로벌 영업 드라이브

2024 파리 모터쇼

기아 EV 출시 앞두고 매력 소개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등 기술 공개
르노그룹 콘셉트카 '엠블럼' 선보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 파리모터쇼가 막을 올린다.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출사표를 던진 파리모터쇼는 14일 막을 올리고 20일까지 닷새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로 126주년을 맞은 파리모터쇼에서 르노와 푸조, 폭스바겐그룹,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미래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국내 완성차 가운데 기아는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 전기차 EV3를 공개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그룹은 자신들의 안방무대인 파리모터쇼에서 르노와 다치아, 알핀, 모빌라이즈 등 르노그룹 산하 브랜드들이 월드 프리미어 7종, 콘셉트카 2종을 비롯한 최신 차량을 공개하고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핵심 모델은 르노 4E-테크 일렉



EV3.



/기아 르노그룹의 새로운 엠블럼 콘셉트카.

/르노그룹

트릭이다. 르노4 E-테크 일렉트릭은 1960년대 생산된 경형 해치백 르노4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순수 전기차(BEV)다.

또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 측면에서 브랜드의 미래를 구현해 낸 새로운 콘셉트카 '엠블럼', 프랑스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오라토와 협업한 '르노 17 레스토모드'도 공개한다. 또 세닉 E-테크 일렉트릭과 트윙고 프로토타입, 르노 5 E-테크 일렉트릭 등 르노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와 함께 심비오즈, 라팔 등 르노 브랜드를 대표하는 E-테크 풀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선보인다. 르노 그룹 내 스포츠카 브랜드 알핀은 이

번 파리 모터쇼에서 브랜드 최초의 전기 스포츠 패스트백 'A930'의 콘셉트카 'A390_β (베타)'를 공개한다. 내년 출시를 앞둔 A390은 울여름 판매를 개시한 핫해치 모델 A290과 함께 알핀의 순수 전기차 라인 '드림 개러지'에 합류할 예정이다.

르노 그룹과 마찬가지로 스텔란티스도 자국 모터쇼에 집중한다. 우선 기존 408모델을 베이스로 제작된 푸조의 기대작 E-408이 선보인다. 친환경차로 제작되는 E-408은 210마력의 모터를 장착하면서 최대 주행거리가 452km 수준에 달한다. 신형 푸조 e-3008 및 e-5008 SUV 플레인지 등 다양한 친환경 모델도 함께

선보인다. 시트로엥도 C4와 C4X 월드 프리미어 공개를 앞두고 있다.

6년만에 참가한 기아는 EV3를 공개할 예정이다. 엔트리급 전기차를 표방하는 EV3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기아가 지난 2021년 출시한 중형 SUV 'EV6'와 2023년 대형 SUV 'EV9'를 출시한 데 이어 기아가 내놓는 세 번째 전용 전기차다.

EV3는 올 연말 유럽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미 2025년 유럽 올해의 차 1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출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파리모터쇼에서 EV3의 매력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 핵심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파리모터쇼에 첫 참가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기술 공개와 영업 활동을 전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참가를 계기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유럽에서 신규 고객을 추가로 확보해 역대 최대 해외 수주 실적을 낸 지난해 기록(12조2000억 원)에 도전한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램프 등 4개 분야의 기술을 공개한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참가도 눈길을 끈다. BMW그룹은 향후 미래차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비전 노이어 클라쎄' 기반의 전기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차명은 iX3인 것으로 전해진다. MINI는 JCW(존 쿠퍼 워크스) 전기차 모델을 새롭게 내놓는다.

폭스바겐 그룹 산하 아우디는 뉴 A5와 함께 RS3, A6 e-트론, Q5를 선보일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7인승 SUV 차량인 타이룬을 공개한다.

중국산 자동차를 대표하는 BYD(비야디)는 대형 전기 SUV 양왕 U8을 프랑스 현지에서 처음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항공업계, 겨울 손님맞이 분주... 동남아 등 취항·증편

대한항공 발리 노선 매일 2회 운항
제주항공 코타키나발루 신규 취항
진에어 클락·비엔티안 노선 운항
에어서울 항공권 할인 등 혜택 강화

항공업계가 겨울철 계절적 수요 증가에 맞춰 따뜻한 동남아 지역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서객뿐만 아니라 피한객도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전통적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즌에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동남아 지역 신규 취항 및 기존 노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라니냐 발달로 올해 초겨울에는 일본 동쪽 지역으로 저

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고 건조한 기류가 유입돼, 11월~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동남아 노선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저비용항공(LCC)업계 1위 제주항공은 동계 운항 스케줄에서 동남아 노선을 대폭 늘렸다. 인천~바탐(10월16일)·인천~발리(10월27일) 노선에 신규 취항할 뿐만 아니라 부산~코타키나발루 노선도 취항한다.

또한 지역 항공편에서도 ▲부산~클락(주 4회) ▲무안~방콕(주 4회) ▲무안~코타키나발루(주 2회) ▲부산~싱가포르(주 7회) 운항에 나설 방침이다.

진에어도 동계 시즌을 맞아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아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클락 ▲인천~비엔티안 노선을 10월27일부터 주 7회 일정

으로 재운항하며, ▲인천~나트랑 노선을 매일 2회씩 운항해 증편한다. 또한 ▲인천~푸꾸옥 노선은 중대형 항공기 B77-200ER을 투입해 공급석을 늘리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10월30일부터 동남아 대표 여행지인 발리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부산~발리 노선은 주 4회 일정으로 운영된다. 11월13일부터는 부산~홍콩 노선에 재취항하는 등 인기 노선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도 동남아 하늘길 확대에 나선다. 에어프레미아는 보잉 787-9 항공기 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인데, 기단 확장에 맞춰 동남아 인기 여행지인 다낭·홍콩 노선에 취항할 방침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도 동계 스케줄에서 동남아 노선 공급을 늘

리기로 했다. 나트랑, 푸꾸옥 노선은 매일 1회 운항했으나 2회로 늘리며, 발리 노선은 주 11회 운항에서 매일 2회 운항으로 늘린다.

에어서울은 보유기단이 적은 관계로 증편 대신 ▲항공권 할인 ▲제휴 혜택 ▲비교적 넓은 좌석(33인치) 등을 앞세워 이용객 확보에 나선다. 동남아 인기 여행지인 보홀·다낭·나트랑 노선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며, 제휴 혜택으로는 ▲여행자 보험 할인(최대 30%) ▲보홀 액티비티 프로그램 할인(최대 17%) 등을 제공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기간은 항공업계 전통적인 성수기"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인기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s@



'더 2025 카니발' 전측면.

/기아

기아 '더 2025 카니발' 출시

안전·편의사양 확대... 상품성 개선

대한민국 대표 패밀리카인 기아카니발이 연식 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했다. 가격은 연식변경을 거치면서 소폭 상승했다.

기아는 국내 대표 대형 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카니발'을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더 2025 카니발은 고객이 선호하는 안전·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더 2025 카니발의 전 트림에 ▲조향제어 방식을 보강해 기존 대비 차로 유지 보조(LFA) 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림 감지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등 신규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또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 운영되던 기아 디지털 키2,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등 편의사양을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아울러 그레비티 트림에서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노블레스 트림에는 코튼 베이지와 네이비 그레이 내장 색상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양성운 기자

에스틴마틴, 뱅퀴시 론칭... "한국에서의 활동 확대"

서울 전시장 오픈 기념 행사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에스틴마틴이 V12 엔진의 걸작 뱅퀴시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럭셔리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수원에 이어 서울에도 공식 전시장을 오픈하는 등 국내 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에스틴마틴은 지난 11일부터 4일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 뱅퀴시 국내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 오픈한 에스

틴마틴 수원에 이어 두 번째 전시장인 에스틴마틴 서울의 오픈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두 전시장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딜러사인 브리타니아오토가 운영하며 에스틴마틴의 국내 공식 수입사로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에스틴마틴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스틴마틴은 이번 행사에서 신형 밴티지와 업그레이드된 DBX707도 전시했다. 이 외에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는 에스틴마틴 아랍코포

몰러원(F1)팀의 AMR24 첼린저와 제임스 본드 영화에 등장한 아이코닉한 실버 버치 색상의 DB5를 비롯해 에스틴마틴의 111년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차량들의 특별 전시가 운영됐다.

마르코 마티아치 에스틴마틴 글로벌 브랜드 및 사업총괄은 "올해는 에스틴마틴이 한국 시장 진출 1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에스틴마틴 고객과 럭셔리카를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라며 "뱅퀴시를 포함한 새로운 모델들을



에스틴마틴 뱅퀴시.

선보이는 지금 시기가 한국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기에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스틴마틴 서울은 대치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2층 504.82m2(약 152.7평) 규모로 최대 7대의 모델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

불매운동·노조갈등… 네이버웹툰, 북미 공략으로 반전 노린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확장·내부갈등 해소 관련
주가 급락·이용자 이탈 등 악재 겹쳐
IP 확장·북미 시장으로 돌파구 마련

네이버웹툰이 연이은 악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WBTN, 네이버웹툰)는 지난 6월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으나 2분기 실적 발표 후 핵심 사용자층의 이탈이 드러나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더해 이달 노조갈등이 가시화 된 데 이어 핵심 사업 아이템인 웹툰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견잡을 수 없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IR 전문가를 영입해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수익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공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위기 타파에 나선다.

13일(현지시간) 웹툰엔터테인먼트(SMS) 11.23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8월 2분기 실적보고서 발표 이후 하루 만에 7.88달러(38.20%)가 폭락한 데 이어 다음날도 5.65% 떨어지며 12달러 선을 기록한 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위기는 2분기 실적 발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창업자(왼쪽에서 4번째)와 창작자들이 지난 6월 27일 미국 나스닥 상장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표 후 드러난 급격한 이용자 감소 추세에서 시작됐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2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억 663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다. 2분기 월간 결제 이용자수(MPU)는 7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특히 최대 시장이자 안방인 한국에서 전년 대비 MAU는 6.6%, MPU는 7.3% 감소하는 데 이르렀다. 유료 콘텐츠 유료 사용자당 평균수익(ARPU)은 11.2달러로 전년 동기 1.4% 증가했으나 한국이 9.9%, 일본이 5.7%

감소했다.

이용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의지를 보였다. 8월 김홍수 웹툰엔터테인먼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자사주를 112.92달러에 7800주를 사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CEO와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자사주 매입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9월 주가는 다시 한번 한 달 사이 21% 곤두박질 쳤다.

네이버웹툰이 맞닥뜨린 문제는 더 있다. 네이버웹툰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IPO 추가 보상이 일부 임원에 집중 된다는 주장으로 이들에 따르면 이번 IPO를 계기로 김 대표는 3000만 달러(418억원)의 현금보너스를 받았다. 노조는 4월부터 회사와 9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IPO에 따른 추가 보상 재원 규모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달부터 '네이버웹툰 지상 최대 공모전'을 열고 신인작가와 작품을 발굴 중인데 '이세계 풍광'이라는 제목의 웹툰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독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독자들은 네이버웹툰 불매를 선언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민원까지 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네이버웹툰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네이버웹툰은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IR 전문가를 영입하고 재무 전략 재설계에 나선다. 또 북미 지역 공략과 더불어 IP 확장에 힘쓰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이달 IR 담당 부사장으로 김수환 전 잉그램 마이크로 IR 부사장을 영입했다. 김 부사장은 UBS, 시티은행, AIG, 도이치 에셋 매니지먼트 등 글로벌 금융기업을 두루 거치고 메타포트와 노턴라이프락 등 미국 IT 기업에서 IR 업무를 총괄한 IR 전문가다. 김 부사장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는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네이버웹툰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작 발굴을 위해 북미지역에서는 아마추어 플랫폼 '캔버스'를 통해 흥행작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북미 고등학교 농구리그인 '오버타임 엘리트' 기반의 웹툰 연재를 시작했다. 틱톡 팔로워가 2799만 명에 이를 정도로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IP다. 추가 IP 확장을 위해 자회사 스튜디오 N은 토에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미르와 협업한 웹툰 '고수'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나선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스닥이라는 특성상 현재 한국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전자, '음주·졸음 운전' 막는다

'인캐빈 센싱' 솔루션 개발 속도
차량 내부 감지·분석해 사고 예방
관련 정책·표준화 제정 함께 추진

LG전자가 한국도로공사와 차량 내부를 감지·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사진)' 솔루션 개발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 VS연구소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인캐빈 센싱 솔루션 기술 고도화'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로 테스트한 운전자 반응 데이터를 LG전자의 인캐빈 센싱 솔루션에 적용한다. 이 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LG전자 인캐빈 센싱.

실제 도로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로교통연구원의 시설이다.

양사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개선·발전 시켜 활용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운전자 부주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캐빈 센싱 관련 정책 및 표준화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LG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인캐빈 센싱 솔루션은 운전자 부주의의 사고 감

지 기능 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시트, 공조, 조명 등을 조절한다. 운전 중에는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으로 건강 상태도 체크한다.

또 차량 디스플레이에 손대지 않고 손 제스처만으로 기능 제어가 가능하다. 하차시에는 지갑이나 스마트폰이 남아 있는 경우 알려주기도 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다이나맥 홀딩스' 지분 공개매수가 인상

한화그룹 해양사업 경쟁력 높여

한화그룹이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나맥 홀딩스'(이하 다이나맥)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을 \$0.67(싱가포르달러, 한화 696.67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14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당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지난달 11일부터 싱가포르 현지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1주당 \$0.60으로 다이나맥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추진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원활한 공개매수 추진과 경영권 확보 작업 성공을 위해, 공개매수 추진 한 달여 만에 매수가를 \$0.07만큼 추가 인상, \$0.67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는 점도 같이 공시했다. 이는 기존 공개매수가 대비 11.7%, 지난 공개매수 전일 증가인 \$0.495 대비 35.4% 프리미엄을 얻은 것이다.

한화가 공개매수에 성공하려면 다이나



한화오션이 건조한 세계최초 FLNG. /한화오션

맥 주식을 50%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며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이미 1158억원을 투자해 다이나맥의 지분 24.0%를 확보한 상태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다이나맥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한화오션은 해양사업분야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멀티야드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T T전화, AI 만나 '에이닷 전화' 재탄생

서비스 명칭·아이콘 등 브랜드 변경

SK텔레콤은 대표 통화 플랫폼 'T전화'에 AI(인공지능) 전화기능을 강화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 명칭과 아이콘 등 브랜드를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닷 전화는 기존 T전화에 에이닷 앱에서 제공하던 AI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다. AI 비서가 전화에 최적화된 정보를 추천하고, 스팸·피싱을 탐지하거

나 통화에서 언급된 일정을 상기시키는 등 전화 통화의 전·중·후를 관리해주는 AI 개인 비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AI 예측 기능은 어디서 온 전화인지 미리 알려주고, 대화 톱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제안한다. 대화 현황을 통해서는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여준다.

신고된 번호는 물론 신고되지 않은 최신 스팸 및 보이스코피싱 의심번호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려주고 차단해 주는 '스팸·피싱 탐지' 기능도 갖췄다.

또한 통화 데이터가 축적된 업체의 특성을 분석해 통화 연결이 잘되는 시간을 제안해 업체별 특성에 맞는 태그, 인기 순위, 고객 분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AI 업체 정보' 기능도 추가됐다.

에이닷 톱에서는 통화할 상대방을 추천해주고,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 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구남영 기자

KT, 소상공인 대상 '가전 할인' 혜택

롯데하이마트와 맞춤형 결합 선택

KT가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소상공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가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KT의 소상공인 맞춤형 결합 상품 '으랏차차 패키지', '하이오더', 그리고 '인공지능(AI)로봇' 이용 고객은 하이마트오프라인매장에서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가전, 청소기·공기정정기 등 생

활 가전, 삼성 노트북 등 스마트 가전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생활 가전은 최대 7%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KT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사장님 혜택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롯데하이마트와의 제휴를 포함해 '배달의 민족' 신규 광고비 페이백, '디너의 여왕' 마케팅 비용 할인 등 총 9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혜민 기자 hyem@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한투-라이프운용, 국내 첫 협업 ETF 상장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 주주 가치 개선 가능성 높은 종목 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이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 국내 운용사 간 협업으로 ETF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15일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14일 밝혔다.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는 국내 주식시장 상장 종목 중 주주 가치 개선 가능성이 높은 대형가치주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지수는 에프앤가이드가 산출·발표하는 'FnGuide 기업가치 지수'이다.

라이프자산운용은 국내 가치투자 1세대인 이재원 의장이 이끄는 운용사로, 정량 및 정성적인 종목 분석을 통한 해당 ETF의 투자 자문을 맡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라이프자산운용이 분석한 종목을 선별해 40개 종목 내외로 포트폴리오 구성 및 ETF 운용을 담당한다.

한투운용 측은 "해당 ETF는 '고객가치'를 지향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주주 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라이프자산운용과 함께 출시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라이프자산운용과의 협업을 택한 이유는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가 필

요시 주주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주 간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주주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과의 미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전략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 방면에서 국내 최초 주주협력주의 전문운용사인 라이프자산운용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는 우수한 비즈니스 펀더멘탈과 기업가치 향상 잠재력, 주주 가치 제고 아이디어를 가졌으나 저평가된 종목들을 엄선해 투자한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의 재평가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한국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이 주주친화 정책을 통해 주가를 높여가는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 역시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내놓은 상품이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가치와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두 회사의 만남이 시너지를 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치주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ACE 라이프주주가치액티브 ETF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투증권, 칼라일과 협력... 해외사업 강화 박차

한국투자증권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칼라일그룹과 전략적 제휴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저스틴 플루프 칼라일그룹 CIO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성환 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1년간 칼라일과의 협업을 통해 선진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양질의 금융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리테일 상품 파이프라인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금투협, 개인 신용거래대주 업무규정 개정

내년 3월31일 개정안 시행

금융투자협회는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 비율을 120% 이상에서 기관대차거래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하고 대주 담보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먼저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16개 증권사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신용거래대주, 신용융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계좌로 신용거래대주·융자 등 전체에 대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140%가 적용되며 담보도 계좌 단위로 통합관리된다.

/원관희 기자

금리인하에 배당주 ETF '인기몰이'

미래에셋운용 '美배당 다우존스ETF' 美 고배당 투자 ETF '슈드' 매수 늘어

국내 자산운용사, 상품 라인업 확대 전문가 "장기적 성과 두드러질 것"

금리 인하기를 맞아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을 비롯한 저축 상품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14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한달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를 643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오며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은 우량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다. 이 기간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개인들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도 192억원어치 사들였다.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배당주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학개미들은 미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 '슈드'(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를 9319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슈드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배당 ETF다. 연 평균 3~4% 수준의 높은 분배율과 시장 변동



/유토이미지

성을 줄일 수 있는 종목 구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배당주 ETF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배당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TIGER 미국 AI 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을 코스피시장에 상장한다.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10개 대형 기술주를 매수하고, 나스닥100 ATM(등가격) 콜옵션을 매일 매도해 분배금을 제공하는 패시브 ETF이다. 옵션 매도 비중을 약 10%로 낮춰 AI 빅테크 기업의 성장성을 따라가면서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추구한다.

신한자산운용도 같은 날 'SOL 미국 500타겟커버드콜액티브'를 선보인다. 이 ETF는 미국 퀄리티500지수 구성 종목에 투자하며 S&P500 ATM 콜옵션을 매일 매도해 배당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3개월 평균 거래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유동시가총액 기준 상

위 500위 안에 드는 종목을 담고 있다.

앞서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SOL 미국 배당 미국채혼합50' ETF를 출시한 데 이어 이달 8일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 TR' ETF를 코스피에 상장한 바 있다. 이 상품은 미국 대표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총수익지수(TR)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패시브형 ETF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배당주의 성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했다. 엄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표적인 미국 배당주 지수인 'S&P500 Aristocrat 지수'의 경우, S&P500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장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배당주의 성과가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자소득의 감소는 배당소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코스피 부진, 삼성전자 주가하락 '한몫'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 상승률 각각 2.91%·9.17%... 약 3배 차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外人 매도세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부진의 원인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꼽히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코스닥이 코스피의 수익률을 추월하기도 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9월 11일~10월 11일) 코스피 상승률은 2.91%로, 동일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 9.17%과 약 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5만전자'로 떨어지는 등 코스피 대장주들의 주가 부진이 지속되면서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다.

문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글로벌 '꼴찌'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 올해 전세계 평균 수익률은 16.6%이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2%, -11.3%를 기록했다. 전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이탈로 인한 시장 수급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며 "우리 시장의 부진에는 반도체 부진이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21% 증가한 79조원, 영업이익은 274.49% 늘어난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뉴시스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되며 코스피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부연이다.

지난 8월부터 쏟아진 외국인 매도세는 코스피 하락에 강한 압력을 주고 있다. 상반기 내내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Sell Korea)'로 투심을 전환시키며 3개월째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12조6497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모건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와 3분기 '어닝 쇼크'의 영향으로 8조6209억원에 달하는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순매도 상위 2번째 종목 역시 삼성전자주, 실망 매물이 대

거 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25%"라며 "시총 비중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보합만 됐어도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라고 분석했다. 대형주 지수인 코스피200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8월 초 급락 이후 완만한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증시 부진에서 삼성전자만 제외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부진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만큼 삼성전자가 표면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편의점 납품 중소기업 2곳 중 1곳, 대금 정산기간 16~30일 소요

중기중앙회, 369개사 대상 조사
10곳 중 3곳 수령기간 '한달 이상' 매출액의 11% '물류 대행비' 지급 직접 납품업체 93% "물류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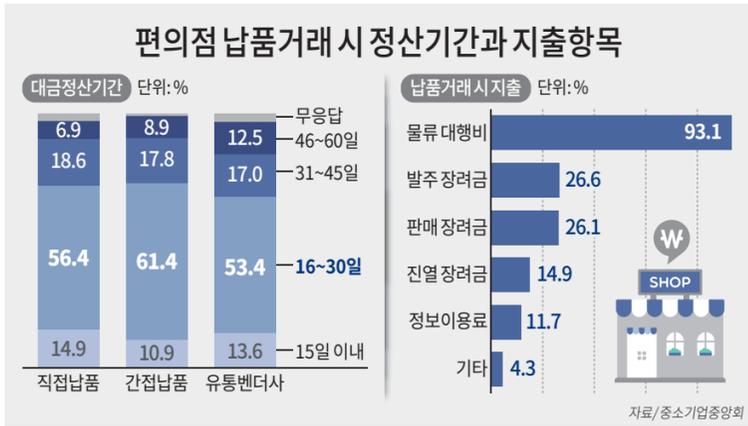
편의점에 거래하는 중소기업 2곳 중 1곳 이상은 납품대금을 받는 기간이 적게는 16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 가량은 납품대금 수령기간이 이보다 긴 한 달 이상 소요됐다.

이는 편의점에 직접 납품하거나 유통 벤더사를 통한 간접 납품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 납품 중소기업들은 물류대행비로 편의점 매출액 대비 평균 10%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대행비'란 거점물류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개별 편의점까지 배송을 위해 납품기업이 편의점 본사에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G



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벤더 369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납품 후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묻는 질문에 직접 납품(56.4%), 간접 납품(61.4%), 유통벤더사(53.4%) 모두 '16~30일'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판매대금을 '30일 지나서 받는다'는 답변도 직접 납품(25.5%), 간접 납품(26.7%), 유통벤더사(29.5%) 모두 25%를 넘었다.

직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대행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물류대행비가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부

담은 ▲발주장려금(26.6%) ▲판매(성과)장려금(26.1%) ▲진열장려금(14.9%) ▲정보이용료(11.7%) 등의 순으로 부담이 컸다.

편의점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평균 마진율은 직접 납품의 경우 43.2%, 유통벤더사를 통한 납품은 46.6%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납품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 납품업체의 76.6%, 유통벤더사를 통한 간접 납품업체의 68.3%가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납품업체가 처음 편의점과 거래조건 협상 시 납품업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편의점과 납품업체 양측의 중간 수준에서 합의됐다'는 응답이 직접 납품업체(79.8%), 유통벤더사(61.4%)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은 직접 납품업체 4.8%, 간접 납품업체 5.0%, 유통벤더사 3.4%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별 회사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4대 편의점 매출액은 총 24조294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순위로는 GS25(8조2457억원), CU(8조1317억원), 세븐일레븐(5조6918억원), 이마트24(2조2251억원) 순이었다.

또 2022년 말 기준 편의점 가맹점 수는 총 5만1681개로 집계된 가운데 CU(1만6615개), GS25(1만6337개), 세븐일레븐(1만2553개), 이마트24(6176개)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년부터 유통 산업에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를 넘어 지속 증가해 납품업체의 거래 실태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지속해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총 상금 15억... 'K-스타트업' 왕중왕전 돌입

중기부, 총 210개팀 통합본선 진출 29일부터 왕중왕전 진출 30팀 압축 12월 최종 20팀 선발 상장·상금 시상

총 15억원의 상금을 놓고 펼쳐지는 국내 최고 스타트업 경연대회 본선이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4' 11개 예선리그가 마무리됨에 따라 14일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통합본선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최종 20팀을 선발하기 위한 통합본선-왕중왕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에서 지난 1월 29일 통합공고를 통해 예선리그별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총 6238팀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10개팀이 평균 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통합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들 210개 팀은 이달 29일부터 4일간의 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 30팀으로 압축되고, 12월 왕중왕전에서 최종 20팀을 선발해 대통령상 등 상장 20점과 상금을 시상한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현재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유망 K-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니콘은 커넥터-케이블을 대체하는 초고속·초소형 반도체 커넥티비티(무선네트워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해 웰컴, 로젠버거 등 글로벌 기업과 PoC(Proof of Concept)를 진행했고, 14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 우수상을 받은 네이션에이는 생생

형 AI 기반 3D·4D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SaaS)로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고 2개 부문에서 CES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다른 최우수상 수상기업인 토트는 전기차 폐배터리 진단과 해체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완전 무인 자동화 솔루션으로 CES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통합본선 개막행사에 참석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가 확산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왕중왕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 홍콩서 이지·퓨어 등 착즙기 홍보

'홍콩 추계 전자박람회' 참가

휴롬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제44회 홍콩 추계 전자박람회(HKTDC Hong Kong Electronics Fair 2024-Autumn Edition)'에 참가해 현지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14일 휴롬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열린 홍콩 추계 전자박람회에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추계 박람회에도 참가하게 됐다.

휴롬은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신제품 착즙기 H410을 비롯한 H400, H320, H310 등 다양한 라인업의 착즙기를 선보였다.

특히 멀티스크루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강조한 이지(easy) 라인업의 착즙기와 착즙망으로 더 많은 주스를 착즙할 수 있는 퓨어(pure) 라인업의 착즙기로 구분해 제품의 특징점을 소개하고, 휴롬의 저속착즙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인 스크루를 발전 과정에 따



휴롬이 '홍콩 추계 전자박람회'에서 마련한 부스에서 방문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휴롬

라 전시해 휴롬의 기술력은 물론 브랜드 히스토리를 알리는데 집중했다.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착즙시연을 선보여 휴롬의 건강 가치를 전파했다. 건강주스로 인기를 얻고 있는 CCA(당근, 양배추, 사과)주스, ABC(사과, 비트, 당근)주스 등을 시연해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신선한 착즙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지역 우수 중소기업 발굴 나섰다

찾아가는 도약 프로그램 현장설명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방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민관이 협업해 미래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추진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스케일업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디렉팅 ▲스케일업 사업과 비용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네트워킹 ▲성공적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정책패키지 등으로 관련 프로그램 선정기업에게 3년 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중진공은 지난 11일 실시한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서부·남부·동부권역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천,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지역의 핵심 산업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지방 중기청과 합동 설명회를 추진한다.

사업설명회에선 제조 중소기업 등 지역 유망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소개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후보특구 사업은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모터·감속기·인버터)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 ▲전북-기능성식품 ▲제주-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등이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안방민심 공략' 보일러CF 선포

지진희 출연 '품질에 대한 믿음' 주제

귀뚜라미가 3세대 카본매트 CF에 이어 보일러 브랜드 CF를 새롭게 선보이며 동절기 안방 민심 공략에 나선다.

귀뚜라미는 배우 지진희와 함께 '품질에 대한 믿음'을 주제로 보일러 브랜드 신규 CF 캠페인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광고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환경오염, 난방요금 등 소비자의 다양한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묵심 있게 지켜 온 귀뚜라미보일러의 품질·안전 철학을 영상에 담았다.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라는 배우 지진희의 대사와 함께 시작되는 광고는 지진, 가스누출, 환경오염, 가스비 걱정으로부터 고객을 지키겠다는 귀뚜라미보일러의 약속으로 이어진다. 끝으로 '품질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업계 선도해온 보일러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드러내며 마무리한다.

귀뚜라미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저녹스 일반 보일러'로 100% 친환경보일러 제품 라인업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효율과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검증된 고품질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리튬·니켈 등 폐배터리 금속, 친환경 미생물로 95% 이상 분리

국립생물자원관, 추출 가능성 확인
미생물 3종으로 금속자원 추출 성공
금속자원 친환경 분리 실용화 목표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발견한 데 이어 최근 이들 미생물의 금속 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안준모·황국화 전북대 교수 및 이효정 군산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양극활물질을 리튬이온배터리의 양



국립생물자원관 전경.

극의 재료로 이용되며,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질 내 리튬을 포함해 구성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수명, 출력 등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물질 내 유가 금속의 희소성 및 자원 편재성으로 인해 페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Acidithiobacillus)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엑시디바실러스(Ferroacidibacillus) 속에 속하는 1종이다.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는 주로 pH

가 낮은 산성환경에 존재하는 그람음성균으로, 전자공여체로 황, 사티온산염, 그리고 제 1철을 사용하는 절대 독립영양생물이다. 철을 산화하는 기능 때문에 환경 공학과 미생물 습식제련 분야에서 모든 호산성 세균 중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Bioleaching)’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소재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전력 공급

합천댐에 20MW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한국수자원공사는 롯데케미칼과 지난 1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EBC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일원 합천댐 수면에 2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66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전량은 연평균 26,618MWh에 달하며, 약 1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롯데케미칼에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직접전력거래는 전력생산자와 전력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전력사용자는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RE100 캠페인 이행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녹색무역장벽 극복에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RE100 달성 노력을 지원함 동시에 마을주민과는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추진해 향후 개발될 수상태양광 사업에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330억달러 목표”

산업부, ‘제2차 플랜트 EPC 정책 포럼’ EPC 업계 차원 미래 발전전략 모색

플랜트 수주 활성화를 위해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마포 엠갤러리에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주관으로 ‘제2차 플랜트 EPC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33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EPC 업계 차원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KIND, 전력거래소, 원스톱수출추진지원단 등 유관기관과 D L이앤씨, GS건설, SK에코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삼성E&A,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ENG, 효성중공업 등 EPC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업계 관심 사항인 △청정수소 발전 제도(CHPS) △금융 지원 방안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전력거래소는 미래 먹거리인 수소플랜트와 관련해 올해 개설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소개하고 생산

에서 활용까지 각 밸류체인에 맞춰 해외 프로젝트 개발,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 하역 및 저장 인프라 구축, 국내 수소발전소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기회를 제시했다.

이어 국내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 ‘국가 개발 프로젝트 특별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초대형 수주지원 특별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등 각 기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해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임병구 플렉스 전략연구소 소장은 발표에서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존 EPC 중심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미 킵소이(Emmy Kipsoi) 주한 케냐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케냐 경제동반협정(EPA)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활동에서 벗어나 기본설계(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단계부터 그간의 EPC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을 활용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기안전공사

캠핑장 안전 수칙 공개

“릴선 풀고, 배전함 청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4일 가을철 캠핑장 전기안전 수칙으로 ‘전기릴선 관리’, ‘비전함 관리’, ‘전기주전자 관리’ 3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전기 릴선의 경우 모두 풀어 사용해야 한다. 릴선으로 오래 사용할 경우 열로 인해 전선의 피복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전함은 최대한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콘센트에 흙이나 먼지가 끼어있는 경우 누전차단기를 OFF로 두고 마른수건을 이용해 이물질을 털어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전기주전자(멀티포트)는 세척할 때 전기 연결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사용하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9~11월) 8436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약 22% (1870건)에 달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최근 캠핑 이용자는 무려 6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야외에서의 전기안전 수칙을 지켜 가족·친구·연인의 즐거운 나들이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 AI 전환 가속화... 플랫폼 연동 논의 “군 징발 토지, 미사용 시 원소유주 반환”

산업부,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정부가 우리 산업의 AI(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독일과 산업데이터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등 양국 정부 담당자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독 산업장관회담, 9월 제3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에서 논의된 산업데이터 공유 및 플랫폼 협력의 후속조치다. 아울러 지난 4월 구축된 산업데이터 플랫폼 관련 양국 민간협력체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포럼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 플랫폼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공유 확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을 계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독일측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관련 기관인 ‘LNI 4.0(Labs Networks Industrie 4.0)’은 산단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계가 산업데이터를 공유 및 활용해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독일 측과 산업데이터 표준,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토지 반환 소유주 권리 회복 “매각 절차 진행 가능하도록 해야”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 “군은 신속히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A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단은 전시 군사작전 필요를 이유로 민원

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A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민원인에게 해당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A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전남도, 한강 노벨문학상 계기로 독서인문교육 끌어올린다

전남교육청, 학생들 독서습관 형성 글쓰기·책 출판 지원 활동 등 확산
내달 18일부터 작품전시회 열어 전남 50개교, 수상 뜻 이을 계획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인문교육과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이 지난 11일 선정됐다. 국내 작가로는 최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은 호남에서 두 번째 노벨상으로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은 무엇보다 호남인들에게 큰 자긍심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는 전남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어서 그 기쁨이 곱절로 의미를 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드높아진 독서 열기를 한 차원 높은 전남의 독서인문교육으로



전남교육청 청사.

/전남교육청

끌어올려 '책읽는 전남교육'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을 여는 독서교실' 및 학생들의 글쓰기와 책 출판을 지원하는 '나도작가 프로젝트' 등을 확산해 가고, 지역과 가정에서도 독서교육을 이어갈 지역 독서인문생태지도 구축에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8~22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는 전남 50개교가 참여하는

'2024. 나도작가프로젝트 학생 책 출판 작품전시회'를 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뜻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호남에서 두 번째 노벨상을 안긴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독서인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을 깨닫게 한

수상이었다."며 "글로벌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해 제3의 노벨상을 호남에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는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9살 때 상경했으며, 아버지는 전남 장흥에 터를 잡고 있는 소설가 한승원이다. 한강 작가는 2005년 단편소설 '몽고반점'으로 최연소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국내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소설의 소재로 주로 우리 지역의 삶을 담았기 때문이다.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수상)뿐 아니라 그가 9년을 걸쳐 쓴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 운동의 고통과 상처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해남 명소, 예술로 만나요”

해남군이 2024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남은 봄부터 미술관이다'의 세 번째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해남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실에서 10월 20일까지, 행촌미술관과 산이 갤러리에서 11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 작품은 지난 3월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된 2024년 해남 봄 답사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해남의 명소인 대흥사, 미항사, 도솔암, 임하도, 옥매광산, 산이정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유화, 수묵화, 추상화,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14일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긍정양육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의 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 마티아스 바이틀 의장의 제안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하윤수 시교육감을 제안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부과

울산시는 대규모 시설 인근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4592건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의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3000㎡ 초과)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 기준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영양군

농업용 드론으로 벼 방제 실시

영양군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56ha에 277농가를 대상으로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벼 드론 방제를 실시했다.

드론 방제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제보다 더 넓은 면적을 보다 빠르게 방제할 수 있어 고령화된 농촌에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차에는 세균성 병과 2차에는 비래해충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방제를 실시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 법인택시 구인난 대응 박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 오는 17일 부산시민공원서 열려 일자리박람회와 연계 추진 '시너지'

부산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일대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기사 구인난에 함께 대응하고자 처음으로 개최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 부산 50+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한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법인택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부족으로 인한 운행 활동이 급감하는 등의 경영난 속에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법인택시 업계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기사의 택배 배달업계로의 이탈에 따른 가동률

급감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5000명 넘게 감소했다.

이에 법인택시 가동률도 44%에 그치고 있다. 택시회사에서 10명이 필요하다면 4명만 확보한 상황으로, 일할 사람이 줄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박람회는 시와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1:1 구직자 채용상담 ▲체험 프로그램 ▲시정 책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됐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택시업계가 종사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법인택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 지원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교육청, 한 달간 '독도 사랑 행사' 진행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경북교육청이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에서 다양한 '독도 사랑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청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의 하나로, 전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도사랑 행사'는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와 '손 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출석 체크 이벤트', '수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 국민에게 독도 사랑과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3년째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사업이 전 국민에게 독도 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높여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반려견 놀이터 전경사진.

전남도, 장흥서 '통합의학' 교류 장 마련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펼쳐져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결합해 전인적인 건강을 돌보는 대한민국 유일의 환자 중심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에서 펼쳐진다.

전라남도과 장흥군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을 주제로 18일 오후 2시 개막, 장흥 안양면 통합의학박람회장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올해 박람회는 대구 전진병원과 광주 위담통합병원 등 통합의학 전문의

료기관이 참여해 통합의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 교류 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어싱길, 맨발 지압존, 야외 약초 족욕장 등 통합의학적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방문객이 다양한 통합의학 체험을 직접 경험하도록 준비했다.

박람회 기간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건강증진관, 건강음식관, 힐링테라피&의료산업관 등 총 6개 전시·체험관이 운영된다. 전국의 대학병원, 대학, 협회 및 단체 등 110여 기관이 참여해 진료와 통합의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 큰 호응 속 성료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홍보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엑스포대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견과 함께하는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무대 프로그램 ▲반려견 놀이터 ▲부스 체험 및 경품 증정 이벤트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퓨리아빠로 유명한 슬리피와 이용중 교수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팻켓 OX 퀴즈, 기다려 대회,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펼쳐졌다.

모든 반려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반려견 운동장과 놀이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으로 구분돼 운영됐다. 넓은 운동장 내에는 다양한 어질리티 장비가 마련됐다.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는 국가대표 훈련팀 및 경주개동경이 팀의 어질리티 공연이 선보였고, 독스포츠 어질리티 체험교육도 병행됐다. 또 K-국견을 만나다(동경이 및 삼살개 체험) 등 다양한 부스는 축제의 흥미를 한껏 더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배추김치 품귀... 갓김치·양배추김치 등 대체수요 급증

aT, 배추 9132원 전년비 40% ↑
아워홈·CJ제일제당 별미김치
판매율 각각 100%·16% 증가

G마켓, 양배추·양상추 거래 늘고
깍두기·열무김치 상품판매도 증가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크게 오른 배추 가격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배추김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갓김치와 양배추김치 등 별미김치의 수요가 증가했다.

13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1포기 가격이 9132원으로 전년 대비 39.95% 급등했다. 전월 대비로는 9.97% 가량 오른 수치다.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배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업계는 포기당 1만원대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가을배추 조기 출하량이 예측을 밑줄 수 있는 데다 대형마트가 최근 들어 배추 가격 할인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김장포기족증가로 포장김치 판매량은 상승세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기준 아워홈의 배추김치 매출은 전년 대비 110%, 대상과 CJ제일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포기김치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당은 각각 17%, 14% 올랐다. 아워홈은 대상과 CJ제일제당의 재고 부족 현상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포장 배추김치조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배추김치 대체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포장김치 업계에 따르면 별미김치 판매율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2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과 CJ제일제당의 별미김치 품목 판매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 16% 가량 증가했다.

이커머스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 사이 양배추와 양상추 거래액이 각각 44%, 41%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된 배추 대신 양배추나 양상추 등의 대체재로 김치를 만드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양파는 91%, 오이와 파프리카는 각각 31%와 20% 거래액이 증가했다. 김치를 대신할 수 있는 양파절임이나 피클 등의 재료 수요가 늘어난 것.

이와 함께 배추김치 대신 깍두기나 열무김치 등 대체 상품 판매도 늘었다. 같은 기간 G마켓의 포장김치 품목별

거래액 증가율을 보면, 깍두기는 820%를 기록했으며 묵은지는 120%, 열무김치 100%, 백김치 41%가 뒤를 이었다. 공급이 여의치 않은 배추김치 거래액은 9% 증가에 그쳤다.

식품기업 샘표는 금배추 대신 다른 채소로 김치를 담그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별미김치 양념 판매를 적극 홍보하기에 나섰다.

네이버스토어 '새미네마켓'을 통해 채소를 절일 필요 없이 쉽고 맛있게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새미네부엌 김치양념 1+1'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배추보다 잎이 두껍고 단단한 양배추도 절일 필요없이 한입 크기로 자르지만하면 손쉽게 양배추김치를 완성할 수 있다. 새미네부엌 김치양념은 겉절이, 물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부추파김치 등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춧값 상승이 '심각' 단계에 이르렀지만, 10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곧 가격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 수급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맥스봉 스팸코복' 첫 선

CJ제일제당이 스팸의 풍미와 맥스봉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맥스봉 스팸코복'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맥스봉 스팸코복'은 '스팸 클래식' 알갱이가 소시지에 박혀있으며, 원육에도 구운 스팸을 갈아넣어 별도의 조리 없이도 스팸과 맥스봉의 풍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의 기술력으로 원육의 탱글한 식감은 그대로 살렸으며, 한 입 크기로 개별 포장돼 술안주나 일상 간식으로 먹기에 좋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신제품이 합리적 가격과 익숙한 두 제품을 조합한 새로운 맛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SPC 대표이사에 임병선... '그레이트 푸드컴퍼니' 포부

이번주 중 각자대표이사로 선임
인사·법무·컴플라이언스 등 출몰

SPC그룹이 임병선 총괄사장을 SPC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그레이트 푸드컴퍼니'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

임병선 사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신세계에 입사했다. 신세계 백화점부문 부사장, 신세계가사 대표이사,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부사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해왔다.



SPC는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어 임병선 총괄사장을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인사, 법무, 대외협력, 컴플라이언스, 홍보 등의 분야를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PC그룹 계열사 사장단 협의체인 'SPC WAY 커미티'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도세호 각자대표이사는 안전경영, 상생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SPC는 임병선 신임 대표이사와 도세호 대표이사의 2인 각자대표체제로 운영해 내부 의사결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임 대표이사는 신세계 재직 당시 인사, 영업, 전략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해왔지만 인사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까사미아가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후 취임하면서 신규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그룹과 조직문화 통합을 일궈냈다.

SPC그룹 관계자는 "임병선신임 대

표이사는 조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계열사의 소통을 강화해 '글로벌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를 향한 그룹 비전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회사 창립 70주년을 맞아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를 내세우며 해외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 일자리 10만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 1만2000개 매장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맞춤형 영양솔루션 제안

대상웰라이프 뉴케어가 토털 영양케어를 아우르는 마스터 브랜드로 확장하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상웰라이프에 따르면 뉴케어는 소비자들의 연령별, 개인별 영양에 대한 고민과 관심사 등을 반영해 차별화된 영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존 균형영양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소비자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도약한다.

1995년 출시된 뉴케어는 올해 기준 10년 연속 환자용 식품 1위를 기록하며 균형영양식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특히 2022년 대한민국브랜드 대상 장관상 수상, 2023년 균형영양식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신원선 기자

롯데리아 서울대입구역점에 '보글봇' 도입 롯데백, 17~27일 '아우터 페어' 행사

SI 적용 리뉴얼 오픈

롯데GRS는 푸드테크 자동화 로봇 '보글봇'과 신규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개 이후 새롭게 개발한 SI(스토어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롯데리아 서울대입구역점을 14일 리뉴얼 오픈했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GRS는 올해 2월 롯데리아 구로 디지털역점에 패티 조리 자동화 로봇 '알파그릴' 도입 이후 후라이 영역의 자동화를 위해 지난 3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 네온테크사와 자동화장비 '보글봇'의 도입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약 7개월간 테스트 및 개발 연구에 동참했다.

롯데리아 서울대입구역점에 새롭게 적용된 보글봇은 작업자의 동선 방해를 최소화해 수평이동 형태가 아닌 직교로봇 방식으로 설계해 매장 내 조리 과정 동선의 효율성 고려와 함께

작업자의 원재료 투입 이후 바스켓의 이동, 셰이킹 작업 및 조리 완료 후 완전한 쿨링 작업을 위한 기름 떨어 작업 과정을 로봇 스스로가 수행한다.

또한 지속적인 원재료 투입으로 발생한 유조 내 탄화물을 자동으로 정제 기능 탑재와 조리시 발생하는 유증기와 열 차단을 위한 밀폐 구조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롯데GRS는 네온테크사와 함께 기능적 부분과 더불어 롯데리아 매장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장비 개발 및 맞춤형 설계를 위해 기존 개발된 모델을 롯데리아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한 모델을 개발했다.

롯데GRS는 현재 첫 적용된 자동 튀김기 '보글봇'을 연내 롯데리아 신김포 공항점과 잠실롯데월드몰B1점에 추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백화점·아울렛 전 점포서 진행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에서 다가오는 가을·겨울 날씨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아우터 페어' 행사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전 점포에서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아우터 페어' 행사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아우터부터 스포츠&애슬레저 대표 아우터까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아우터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행사 기간 중에 스포츠&애슬레저 행사 참여 브랜드에서 당일 20만/40만원 이상, 골프 상품군에서 당일 60만/100만/200만/3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0%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17일부터 27일까지는 롯데백화점



한 고객이 롯데백화점에서 패딩을 구경하는 모습. /롯데백화점

에서 패션·스포츠·잡화 상품군에서 당일 3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상당의 금액할인권을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착순 10만명에게 증정한다.

겨울 대표 브랜드의 팝업스토어도 선보인다. 타임빌라스 수원 3층에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겨울 패딩 대표 브랜드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신세계사이먼 시흥에 '위시켓' 떴다

신세계사이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는 27일까지 SAMG엔터의 신작 애니메이션 '위시켓'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캐릭터 특화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신세계 사이먼이 가을 나들이 시즌을 맞아 가족 단위 쇼핑 고객을 위해 인기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센트럴 가든에는 초대형 아이닝 입체 조형물과 20종 위시켓 전 라인업 포토존이 들어서 인기 캐릭터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야간에는 주변 나무들에 전구를 밝혀 동화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최빛나 기자

만성질환자수 136만명 육박 “복용자 관리강화 방안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년 대비 약 46% 증가
주상병 당뇨·고혈압... 30% 차지



이처럼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20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 또한 75~84세였다.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수가 올해 상반기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 명으로 지난 2020년 93만2700여 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가 3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65~74세 30.5%, 85세 이상 15.7%, 55~64세 13.3%, 45~54세 4.0%, 45세 미만 1.4%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 1~2 분위 25.4%, 7~8 분위 18.5%, 5~6 분위 14.9%, 3~4 분위 8.5%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 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9~10분위는 올해 지난 202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은 1~2 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아울러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

병과 고혈압이 30%대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당뇨병은 37.3%, 고혈압은 34.3%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관절 증 27.5%, 만성요통 24.5%, 만성위염 24.3%, 시력감퇴 23.4%, 만성심질환 15.9%, 알레르기 15.8%, 전립선비대 증 15.4%, 치매 14.7% 순으로 드러난 점도 눈에 띄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해서 치매의 비중은 12.7%에서 14.7%로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 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원은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일 본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 5000례 달성

문혜성 센터장, 최다 수술기록 유지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문을 연지 5년 반 만에 수술 5000례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병원 중 전례 없는 빠른 속도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일 본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최첨단 단일공 로봇수술이 가능한 다빈치 SP 시스템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며 로봇수술의 트렌드 변화를 주도해 왔다. 세계 최초로 다발성 자궁근종에서 단일공 근종 절제술을 시행했고 단일공 방광절제술, 단일공 대장암-간전이암 동시 수술 등 국내 최초의 기록을 썼으며, 단일공 유착성 자궁내막종

절제술,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각종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특히 문혜성 로봇수술센터장은 올해 초 로봇수술 2000례를 돌파하고 지난해 7월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해 현재 이 분야 최다 수술 건수 보유자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과 함께 이대목동병원도 최근 로봇수술 5000례를 비슷한 시기 돌파를 하면서 이화의료원은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하게 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부인과 로봇수술의 진화 및 비뇨의학과, 외과의 첨단수술 기법을 발표하며 축적된 수술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이대서울병원의 로봇수술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을 진행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유럽 의약품청 ‘CT-P55’ 3상 신청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인터루킨 억제제’ 파이프라인 확대 스테키마 등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영역에서 ‘인터루킨 억제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맵) 바이오시밀러 ‘CT-P55’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유럽 의약품청이 관리하는 임상시험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 셀트리온은 관상형 건선 환자 총 375명을 대상으로 CT-P55와 오리지널 의약품 코센틱스 간의 유효성, 안전성, 동등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해당 임상에 대한 IND를 이미 승인 받았다.

또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12월에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CT-P55 임상 1상 IND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다. 현재 셀트리온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은 건강한 일본 성인 171명을 대상으로 CT-P55와 코센틱스 간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비교 연구하는 중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CT-P55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CT-P55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코센틱스는 인터루킨-17A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인터루킨-12, 23 억제제인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맵)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스텔라라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이후 캐나다, 유럽, 영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로 스텔라라 허가국을 속도감 있게 확장했다. 아울러 스텔라라 품목허가는 관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요 적응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올해 2월 국내에서 약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맵) 바이오시밀러 ‘CT-P47’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CT-P4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약템라가 한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인 류마티스 관절염, 거대세포 동맥염,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약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다.

한편 셀트리온은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LG생건, 베비언스 ‘베이비 고보습 크림’

LG생활건강이 ‘베비언스 센서티브 베이비 고보습 크림(사진)’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베이비&키즈 전문 브랜드로 베비언스를 공개하고 이후 아기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섬유 관리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



은 소아 대상 인체적용시험으로 검증된 72시간 보습 지속력을 갖췄다.

특히 피부 유사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습 장벽을 강화하고 아기의 피부를 보호하는 등 피부 내 수분의 증발을 막는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원씽 ‘시카 B5 라인’ 4종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자회사원씽에서 ‘시카 B5 라인’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씽 시카 B5 라인은 스킨케어 단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토너, 세럼, 크림, 마스크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 모두 어린 병풀잎, 병풀뿌리, 병풀 단백질, 병풀 세라마이드, 3-테카 등 5가지 시카 성분과 비타민 B5를 함유하고 있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토너, 세럼, 크림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제품 사용 후 피부 장벽 개선·피부 진정·열감 진정·피부결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확인받았고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 자극 테스트를 거쳤다.

마스크 제품의 경우 얇고 부드러운 비건 시트와 산림인증제도 FSC 인증을 획득한 단상자를 사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완성됐다.

/이청하 기자

에스티젠바이오, 美 FDA ‘cGMP’ 인증

(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하반기 ‘DMB-3115’ 생산 계획

동아쏘시오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회사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원료의약품(DS), 사전종전형(PFS) 주사제 등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우수한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승인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스티젠바이오의 송도 바이오 공장 은 앞서 지난 9월에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우수한약품 품질관리 기준(GM

P) 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23년 7월과 10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DMB-3115’ 품목허가 신청이 완료되면서, 에스티젠바이오는 DMB-3115 제품 생산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에스티젠바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DMB-3115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DMB-3115(성분명: 우스테키누맵)은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관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FDA에서 DMB-3115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에스티젠바이오는 바이오 의약품 3대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DMB-3115 상업화 생산이 본격화되면 에스티젠바이오는 대형 품목을 내놓음으로써 고객사 추가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스킨유 ‘딤머스크 바디오일’

아모레퍼시픽이 고급 바디 관리 브랜드 ‘스킨유’에서 신제품 ‘딤머스크 바디오일’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스킨유 ‘딤머스크 바디오일’은 피부결과 탄력을 강화해 주는 제품이다. 7단계 공정을

거친 스페인산 해바라기씨오일을 35% 함유하고 있고, 호호바오일과 녹차씨오일을 담은 식물성 오일이 피부에 걸들지 않고 빠르게 흡수된다. 깊고 은은한 머스크향이 더해진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동국제강그룹,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2억 전달
동국제강그룹이 14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2024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식'을 갖고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2억원을 대한소방공제회에 전했다. 이날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왼쪽),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강그룹



오비맥주, 이천시 '오비맥주 연대기' 전시
오비맥주가 이천시립박물관에서 '오비맥주 연대기: 이천에서 시작되는 오비맥주 이야기' 전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 이천공장 김두영 공장장(왼쪽), 김경희 이천시장(가운데),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이 11일 열린 이천 기업발전 전시 '오비맥주 연대기' 개막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KB금융그룹, 인니서 '친절 나눔' 글로벌 봉사활동
KB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함께하는 KB 인도네시아, 친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KB 인도네시아 희망나눔 봉사단'은 이날 인도네시아 전통 메뉴로 구성된 점심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자카르타 북부 켈라파 가딩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배달했다. /KB금융그룹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푸른익산 만들기' 기금 기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11일 익산시청에서 김연섭 대표, 정현울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른익산 녹색정원도시 만들기 동참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오른쪽), 정현울 익산시장(가운데), 김수성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동아오츠카, '파랑달빛' 프로젝트 성료
동아오츠카는 가이드 러너 양성 프로젝트 '포카리스웨트 가이드 러너 트레이닝 프로그램(파랑달빛 1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상을 파랑게 물들이며 함께 달리는 빛이라는 의미인 '파랑달빛'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달리기 활동을 할 수 있게 전문 가이드 러너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동아오츠카

현대차그룹 사회공헌 '액셀'

기아, '하모니움' 신사업... 다문화 미래세대 돕는다

(하모니+움트다 합성어)

자립 지원, 인식 개선 등 노력 26일 '하모니움 페스티벌' 개최

기아가 새로운 사회공헌사업인 '하모니움(Harmonium)'을 통해 다문화 미래세대 성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하모니움'은 조화를 의미하는 하모니(Harmony)와 새싹이 돋아나는 의미를 움트다의 합성어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래세대가 조화롭게 하나 되어 다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모니움'은 크게 ▲다문화 청

소년 자립 지원 ▲다문화 가정 사회적 인식 개선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아는 '하모니움'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해낼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직접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회, 경제 교육에 서부터 코딩, 영상기획 등의 특화 교육까지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전문 강사진들과 함께 하는 진로 탐색 및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또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실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별도의 거점 교육 공간도 마련해 진로·심리 상담, 동기부여 특강 등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연 50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기아는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첫 단계로 오는 26일 노들섬(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인 '하모니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다문화를 주제

로 진행되는 이번 하모니움 페스티벌은 ▲토크 콘서트 ▲악외 음악회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전시와 부스가 함께 마련되며, 다문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즐길 수 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기아는 '하모니움'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은 물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보다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아동 이동권 증진 앞장

초록우산에 차량·카시트 기증

현대자동차가 장애 어린이 복지 시설에 차량과 카시트를 기증해 이동 취약 아동의 이동권 향상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1일 초록우산 한사랑마을(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스타리아 휠체어 리프트, 스타리아 킨더 차량 2대와 어린이 카시트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현대차가 이동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목표로 맞춤

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 'H-스페셜 무브먼트'의 일환이다.

올해 현대차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휠체어 승객이 편안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타리아 휠체어 리프트'와 ▲어린이의 안전과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스타리아 킨더' 2대의 차량과 함께 어린이 카시트 315개를 기증해 더 많은 인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대차에서 사내벤처로 분사한 카시트 전문기업 '폴레드'와



현대차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초록우산 한사랑마을에서 '스타리아 휠체어 리프트', '스타리아 킨더' 차량 2대와 어린이 카시트 기증식을 진행했다. /현대차

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카시트를 확보했으며, '폴레드'에서는 보호매트, 선바이저 등 카시트 액세서리와 신생아 바구니카시트 100대를 추가로 지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애 아동들

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량과 카시트를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동 취약 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LG U+, 전자폐기물 수거 캠페인 전개

황현식 대표 등 자원순환활동

LG유플러스는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임직원 가정과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가정과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

제품들을 모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오전 용산사옥에서는 임직원들이 가정에 있는 보조배터리, 휴대용선용품, 키보드 등 폐가전제품을 가져오면 도넛과 커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CEO)도 사용하지 않는 선용품을 전달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자원순환활동에 동참했다.

수거된 전자폐기물은 부품 속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 세번째)가 14일 용산사옥에서 전자폐기물 수거 캠페인에 동참하며 전자제품을 전달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철, 구리, 알루미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분해하는 작업을 거쳐 재활용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T-롯데하이마트 스마트 가전 특별 할인

KT가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소상공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가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KT의 소상공인 맞춤형 결합 상품 '으랏차차 패키지', '하이오더', 그리고 '인공지능(AI)로봇' 이용고객은 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가전, 청소기·공기청정기 등 생활 가전, 삼성 노트북 등 스마트 가전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생활 가전은 최대 7%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한화그룹 "맑은학교 만들기' 함께해요"

한화그룹의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인 '맑은학교 만들기'가 4차년도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

한화가 환경재단과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에 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태양광 발전설비 포함, 자동환기 시스템, 에어샤워 공기정화장치 등)을 지원해 아이들

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지난 3차년도까지 한화는 전국 15개 초등학교, 489개 학급, 약 1만 2000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 환경을 제공해왔다. 특히 이번부터 유유교실을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신규 지원해 아이들의 일상에 변화를 더해줄 예정

이다.

맑은학교 만들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내달 10일까지이다.

한화 관계자는 "맑은학교 만들기는 교육환경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올해 추가된 친환경 휴게 공간이 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국제조세정책관 박홍기
- ◆인사이트코리아 ▲편집국장 송창섭

부음

▲황선두(전 삼성전자 국내판매 총괄 부사장, 삼성종합화학 사장)씨 별세, 백종자씨 배우자상, 해진·순재씨 부친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6일. 02-3410-6912(15일부터, 02-3410-6915)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2

2024 제약 · 바이오 포럼

2024. 10. 23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기조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임운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세계 5대 위스키 강국



정성운의

K-위스키 발전을 위한 제안

위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애호가를 보유한 주류 중 하나로, 그 품질과 명성은 각 나라의 전통과 역사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특히 세계 5대 위스키 강국으로 불리는 스코틀랜드·아일랜드·미국·캐나다·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과 철학을 통해 독특한 위스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위스키의 본고장으로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곳 위스키는 몰트와 그레인으로 구분되며 특히 몰트 위스키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과 오랜 숙성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풍미를 자랑한다. 스코틀랜드의 다섯 주요 생산 지역인 하이랜드·스페이스사이드·아일랜드·로우랜드·캠벨타운은 각각 독특한 풍미를 지닌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경험하는 재미가 있다.

아일랜드는 스코틀랜드와 함께 위스키의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 '아이리시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 위스키는 대체로 스코틀랜드 위스키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다.

미국 위스키는 '버번'과 '라이 위스키'로 대표된다. 켄터키와 테네시 주에서 주로 생산되며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고 새 오크(New Oak) 배럴에서 숙성되어 달콤하고 풍부한 맛을 낸다. 테네시 위스키는 버번과 비슷하지만 증류액을 단풍나무 숲으로 여과하는 특유의 과정을 거쳐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지닌다.

캐나다 위스키는 '라이 위스키'로 잘 알려져 있다. 부드럽고 가벼운 풍미가 특징이며 캐나다 위스키는 다양한 곡물을 혼합해 만들기 때문에 위스키마다 그 맛과 향이 매우 다양하다.

일본은 비교적 늦게 위스키 시장에 진입했지만 독창적인 스타일과 높은 품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일본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더 섬세하고 정교한 맛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필자가 방문했던 M 증류소는 스페이스사이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 중 하나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곳은 위스키 애호가를 사이에서 '위스키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품

질과 명성이 자자하다.

S 증류소는 캠벨타운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증류소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몇 안 되는 증류소 중 하나다. 보리를 맥아로 만드는 과정부터 숙성이 끝난 위스키를 병입하는 모든 공정을 직접 하는 유일한 재래식 증류소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 위스키는 구수한 피트, 스모키 향과 함께 바다의 짝짝한 느낌을 지니고 있어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필자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근무한 클라이드사이드 증류소는 위스키 지역구분상 로우랜드에 속하는 글래스고에 위치하고 있다. 짧은 발효시간과 컷포인트(숙성에 사용할 본류 증류를 중단하는 시점)로 깔끔하고 정제된 풍미의 위스키 원액을 생산한다.

이 곳으로 들어오는 원료는 몰트(맥아)와 효모, 호수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세 가지로 약 4일만에 70도 이상의 맑은 증류 원액이 되어 오크통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숙성중인 원액은 꼬박 3년하고도 1일을 오크통 안에서 기다려야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

/골든블루 마케팅팀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韓증시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최근 한국 증시가 악재에는 강하게, 호재에는 약하게 반응하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상반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주요 글로벌 증시 중 수익률이 최하위권에 속한다. 플러스를 기록한 여타 주요 지수들과는 달리 연초보다 약 2% 하락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인 밈이 번지고 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구르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추세를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것은 개미들보다는 외국인들이었다. 그러다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나면 쉽게 휘청거렸다.

코스피는 역사적인 폭락장을 기록했던 지난 8월 5일 '검은 월요일'의 여파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폭락장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8월 1일 코스피는 2777.68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2600선도 무너졌다. 이른바 '회복탄력성'이 미흡한 셈이다. 회복탄력성이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역경과 시련,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모건스탠리의 '메모리 반도체 겨울설'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고전했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

고서를 잇따라 두 차례 발간했는데, 각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28%, 54%씩 낮췄다. 당시 해당 보고서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삼성전자는 2.02%, SK하이닉스는 6.14% 급락했다. 이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나서 'K-반도체' 기업의 견제함을 반박했지만 SK하이닉스만 페이스를 되찾고, 삼성전자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부진은 개미들의 기대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이었던 7월까지만 해도 '10만전자'를 바라봤지만 '5만전자'로 다시 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부족한 회복탄력성은 부족한 논리에서 시작된다고 판단된다.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주가 부양 재료보다는 논리적인 흐름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외출할 때 계단 조심해야 한다. 48년생 욕심이 도를 지나쳐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 60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하는 하루. 72년생 물 흐르듯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84년생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다.



37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49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61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이지만. 73년생 반려 아기를 먹이만 주지 말고 때 되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85년생 승진의 운세.



38년생 자식이 도둑처럼 느껴져도 방법이 없다. 50년생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라. 62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분. 74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는 일을 그르친다. 86년생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줘라.



3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1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 63년생 주변이 소란스러우니 말조심. 75년생 평소 생각한 것이 말이 되지 포용의 마음을. 87년생 산행하는 사람에게 산에 오르는 이유를 묻는다.



40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펄근감한 하루가 될 듯. 52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6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76년생 날새 떼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88년생 실개천 구경 가자.



41년생 위기를 겪으며 확실한 상황을 알게 된다. 53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6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있다. 77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 겸허히. 89년생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지만.



42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빙빙 도는 형국. 54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가져온다. 66년생 빌려주고도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78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90년생 12시부터 운전을 조심.



4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55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면 해결될 일이다. 67년생 여행을 떠나는 좋은 일이 생긴다. 79년생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도움도 따르게 마련이다. 91년생 사는 것이 다 그런 거.



44년생 자식 말만 믿고 우물거에서 송충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56년생 우물거에 침 뱉지 마라. 다시 찾게 된다. 68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80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먼저 손질해 놔야. 92년생 세월은 기다리지 않는다.



45년생 처음도 중요하나 끝맺음을 잘해야. 57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하라. 69년생 병이 오나 약도 주어지지 다행이다. 81년생 승진에 빠져서도 낙심은 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93년생 믿을 수 있는 자를 믿어야.



46년생 투자는 신중 잘보고 금방 달려들지 마라. 58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를 멀어지게 한다. 70년생 시작하는 일에 혼자보다는 합작으로 해보라. 82년생 파란 하늘이 보고 싶은 날인데 구름이 잔뜩 있으니. 94년생 사는 것은 오묘하다.



47년생 현상 유지가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59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71년생 좋은 것은 당분간 보류. 83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청소하여 환경을 바꾸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나가라. 95년생 오후에 약속 소식이 온다.



김상회의四季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아침 저녁으로 필자의 총정리 월광사 앞에 찾아드는 참새들을 보며 오는 아침에도 과자와 쌀을 던져 주면서 든 노랫말 생각이다. 오늘 온 참새가 어제는 그 애들일까. 그리운 이름, 김 산(金山) 아가는 필자가 아침마다 또는 어느 저녁때라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곡식 부스러기를 뿌려 줄라치면 짹짹거리는 참새들을 향해 뛰어오르며 짓곤 했다. 그럴 때마다 참새들을 후루룩 날아오르면서도 기가 막히게 쌀알 톨을 입에 물고는 날갯짓을 했고 제풀에 지친 필자의 아가 김 산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참새들을 쳐다보곤 하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인연이었을까? 어떤 인연으로 그대들은 참새의 모습으로 하필이면 필자의 앞마당에 와 쌀톨을 받아먹는 것이며, 산이는 “왕, 왕”하며 짓어대다가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매일 매일 반복되는 양탈 같은 인사를 나눴던 것일까?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참새들은 문 앞 난간 울타리에 찾아와 짹짹거리는데 산이가 예전처럼 푹푹 뛰어오르며 짓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지는 않는다. 아, 이별은 필자의 가슴 속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문득 붓다의 오도송이 생각난다. “그대들과나, 이생에서 저생으로 한량없는 세월, 윤회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 태어났니 이는 고통이었다. 아!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갈애와 욕망은 파괴되었도다.” 이렇듯 존재의 실상은 태어나면 노병사하기 마련인 것이고 깨달아 열반에 들지 못하면 한량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밖에 없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3	7			6
4	3						8
		6	8		4		
1				3	5		
			2	9			
		8	5				7
		9		2	6		
5							3
7			6	1			9

1	9	3			6		7
							3
6			8		2		
9			5		3	4	
		6			9		
	4	2	3				5
		5	1				7
3							
6		9			5	3	8

6	7	8	9	1	9	8	2	1
2	8	1	8	6	2	7	9	9
9	2	9	7	2	8	6	1	8
2	6	2	1	9	9	8	7	8
1	8	8	6	7	2	1	9	9
7	9	9	8	2	8	2	6	1
8	9	7	2	8	1	9	2	6
8	2	2	9	9	6	1	8	7
9	1	6	2	8	7	9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보 정근식 '단일화', 보수 조전혁 러브콜 윤호상이 거절

서울시 교육감선거 '3파전' 전망

교육감 보궐선거 D-1

진보 진영 최보선 후보 사퇴 보수 윤호상 '선거 완주 의사'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진보 진영에서는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근식 후보가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지만, 이를 윤 후보가 사실상 거절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전혁 후보는 전날 논평을 통해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했다.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며 "진보좌파와 조희연이 망쳐 놓아버린 10년의 서울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윤호상 후보에게 맑고 투명한 단일화를 요청한다"라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진보 진영은 완전한 단일화에 성공했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지난 12일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이자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후보"라고 평가하며 사퇴했다. 단, 사전투표와 16일 치러지는 본투표 모두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 기표란에는 최 후보 사퇴 사실이 표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사하고 있다. /뉴스시

시되지 않는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도 윤 후보에게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정책연대가 실현되면, 진보·중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되고 조전혁 후보만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조 후보와 정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룬 상황에서, 최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게 이번 선거를 판가름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지난달 25일 보수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는 단일화 후보를 뽑을 당시 윤 후보가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조전혁 후보가 보수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윤 후보는 선거 완주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비정

상의 서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출마했으며 어떠한 타협 없이 소신껏 끝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라며 "서울 교육은 이제 진보, 보수, 좌, 우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서울 전체 유권자 832만 1972명 중 68만9460명이 참여해 최종 사전투표율 8.28%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10.52%)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동작구(9.28%) ▲서초구(9.14%) 순으로 보수 결집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김동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나서

경기도, 김 지사 단장으로 美 출국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 동행



도내 기업에 글로벌 투자유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새싹기업(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다보스포럼(2024 세계경제포럼) 참가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정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노베이터 커뮤니티에 초청을 받으며 세계적 스타트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에 이번 경기도대표단과 함께 도내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이 동행해 UKF(United Korean Founders, 한인창업자연합)와 경기도-미주지역 간 스타트업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UKF는 미주지역 내 한인 기업가들이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또 이들과 함께 UKF가 주최하는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해

이번 방문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도 이뤄진다. 산업안전인증의 세계적 기업인 A사와 물류센터 투자 및 개발 플랫폼 외투기업인 B사와 투자협약을 추진 중이다.

국제교류협력분야에서는 버지니아주 지사와 뉴욕 주지사를 만나 첨단산업 등의 실질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버지니아주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며 주요 데이터센터들이 있는 곳으로, 김 지사는 글렌 영킨(Glen Youngkin) 버지니아주지사와 스타트업,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 분야 혁신동맹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대표 도시' 뉴욕주와의 교류도 이번 만남을 계기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에게 경기도와 뉴욕주 간 스타트업 분야 물적지원과 인적·기술 교류와 경제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방배5구역 체육센터 설계 공모작 선정

송민준의 '서울 토포그래피'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 부지에 건립할 다목적 체육센터 등의 설계공모에서 인터카드 건축사사무소(송민준)의 'SEOUL TOPOGRAPHY(서울 토포그래피)'를 당선작으로 뽑았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약 743억원을 투입해 방배동 974-3번지 일대에 연면적 1만 5000㎡, 50m 8레인 규모의 수영장 갖출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운동시설을 넘어 대지 전

체의 지형에 대한 오마주라는 개념으로 자칫 거대해질 수 있는 건물을 경사 지붕으로 감싸 부담감을 줄였고, 굴토를 최소화해 주변 공민들과의 경사 차이를 건축물로 연계했다.

또 도로변에 건축물의 전 층을 연결하는 밝고 생동감 있는 입체적 라운지를 계획하는 등 풍요로운 공공 공간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설계 공모 1등팀은 설계계약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150억 투입... 영화센터·창조산업허브 건립

서울시, 창업허브 등 인프라 구축 내년 9월 서울영화센터 개관 목표 2027년 서울창조산업허브 오픈

서울시가 문화와 기술, 창조성이 융합된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태계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창조산업과 창업허브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창조산업 거점 확충을 위해 올해 서울영화센터와 서울 창조산업허브 건립에 약 15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내년 9월 서울 중구 마른내로 38에 국내 영상산업의 중심점이 될 서울영화센터를 개관한다는 목표다. 센터는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4806㎡ 규모로 만들어지며, 상영관 3개소와 다목적실, 공유 오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64억5300만원이며, 금년 예산은 62억1800만원이다.

또 시는 오는 2027년 7월 중구 소파로 126 일대에 창조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서울창조산업허브의 문을 열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 3층, 연면적 1만6127㎡ 크기로 조성되며, 입주 공간, 전시장, 콘텐츠허, 라이브러리&카툰숍이 들어선다. 올해 86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총사업비는 957억 9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강화한다. XR(확장현실) 콘텐츠·디바이스 분야 우수 기업 1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5000만원~1억5000만원)를 돕는다. XR 융합산업 부품-조립-서비스 실증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실증·시험 평가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트'도 지속 육성한다. 현재까지 시는 스튜디오 대여 484건, 채널 분석 포함 멘토링 56회, 장비 대여 206건, 브랜드 콘텐츠 249편 제작 등을 지원했다. 상상비즈아카데미에서는 4개의 하

반기 교육 과정 ▲오리지널 웹툰 개발 ▲웹툰 기획 PD ▲웹소설 입문·데뷔 A-Z 클래스 ▲2D·3D·기획 실무 애니메이션 수강생을 각 20명씩 선발해 수업을 운영 중이다.

이달 시는 XR 페스티벌 및 비즈니스 포럼·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엔 크리에이티브 포스트 어워드를 열어 우수 크리에이티브에게 상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창업허브 3개소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구로구에는 첨단제조 분야 장비 구축·스타트업 육성 업무를 맡을 '서울창업허브 구로'가, 관악구에는 산·학·연계를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관악'이, 성동구에는 성장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스케일업을 서포트하는 '유니콘 창업허브'가 생긴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10월 15일 (화)

음력 : 9월 13일

수도권 날씨

17~2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40 | 해질 / 17:5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지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스라엘에 사드 추가배치 의미는... '철통 방공망' 더 강화
▲美, 이스라엘에 병력 주둔... "이란과 분쟁에 적극 개입 의미" /사진 뉴스시

▲각국 덮친 中 '첩보공작 쓰나미'... 국제사회, 방첩 대응 고심
▲中방첩기관, 드라마까지 동원해 외국 스파이 '경계령' 강화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9차 방류 완료... 781t 처분
▲태국, 홍수 피해 치앙마이 복구 총력 전... "관광객에 방문 보조금" /사진 뉴스시



배추김치 품귀현상에 별미김치 인기



Life

현대차그룹 '하모니움' 사업 등 상생경영 나서 L4



인재 키우고, 지역과 상생... 골프장도 ESG경영 앞장선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맥컨트리클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일대 소백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명당 중의 명당에는 18홀 규모의 한맥컨트리클럽이 있다. 임기주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한맥CC는 지역사회와의 나눔과 상생 그리고 골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정성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PGA 파운더스컵 영구 개최하겠다”... 임기주 회장 골퍼 인재 개발에 '진심'

한맥CC는 최근 KPGA 투어대회인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를 지역 골프 축제로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는 임기주 회장이 적극 펼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이다.

임 회장은 단순히 대회 개최뿐 아니라 골퍼들의 인재 육성, 지역발전과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맥CC는 지난 4월 한국프로골프 투어 시즌 두 번째 대회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개최지인 경북 예천 한맥CC 임기주 회장이 대회를 계속 유치하기로 약속했다.

임기주 한맥컨트리클럽 회장은 파운더스컵 최종 라운드에 열린 지난 4월 21일 "파운더스컵이 열리는 한, 한맥컨트리클럽을 대회 코스로 제공하겠다"고 KPGA 측에 약속했다. 한맥 컨트리클럽은 올해 새로 창설된 KPGA 투어 파운더스컵 개최 코스다.

단순한 개최 코스가 아니라 코스 사용료를 받지 않아 사실상 대회 스폰서로 나섰다. 이는 임 회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한맥컨트리클럽은 앞으로도 파운더스컵 때 코스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KPGA 투어의 특정 대회를 특정 코스가 영구 개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양산의 에이원컨트리클럽이 2016년부터 2027년까지 무상으로 KPGA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10년 단위 계약이라 영구 개최는 아니다.

이같은 임 회장의 의지는 골퍼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자는 의지가 숨어 있다.

임기주 회장은 <메

임기주 한맥컨트리클럽 회장



KPGA투어 파운더스컵 개최지 한맥 컨트리클럽.

/KPGA

KPGA 파운더스컵 영구 개최 지원 골퍼 육성, 지역발전 등 상생에 초점

골프 대중화 앞장... 정부와 협력 강조 캐디 고용보험, 시설안전관리 강화도

친환경 관리 시스템 보유 '에코골프장' 예천지역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 시작 한맥CC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골퍼들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수많은 돈이 든다. 그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사용한다면 누구보다 한발짝 앞에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골퍼들이 좋은 환경의 골프장에서 대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골프장 벽 허물어야...골프 문화 대중화가 목표

임기주 회장의 ESG활동은 범위가 넓다. 무엇보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속력을 내고 있다. 골프장의 높은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ESG 경영의 일환이라는 게 임 회장의 생각이다.

임 회장은 골프 대중화를 기치로 2008년에 창립된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제6대 회장에 취임한 뒤 올해 연임에 성공, 내년까지 7대 회장직을 수행한다.

이에 따른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 골프장 캐디의 고용 보험,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코스관리 업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 그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들을 보완하며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임 회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차원에서 임 회장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시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대중형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패키지 상품 및 동호회 등 단체팀 예약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과 무단 취소 등 위약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한 그간 추진 및 시행해오던 골프장 인력난 해소와 캐디 등 골프장 근로 활성화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골프대중화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대중형골프장의 원가 부담 해소를 위한 공시지가 인하,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행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등을 요청했다.

그는 골프산업의 지속 발전과 골프 대중화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골프장 관련 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건의하는 등 골프장들의 애로사항을 발표하며 "예약공정성이 확보된 패키지 상품 및 단체팀에 대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간 적극적인 검토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중골프장은 고가의 회원권이 없는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개방형 확장형 대중체육시설로서 국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은 대중형 골프장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전국의 골프장 106곳

이 회원사로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 및 회원사 간의 유대강화와 권익 보호 등 대중골프장들의 발전 및 진정된 골프 대중화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을 생각한 에코 골프장으로 유명... 지역 경제 발전 '상생이 목표'

18홀 규모의 한맥CC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양잔디를 심은 코스다. 소백산이 둘러싸고 있어 풍광이 빼어나고 바람을 막아주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아 사계절 라운드가 가능하다. 친환경 코스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도 최고의 배수를 자랑한다.

이번 KPGA 파운더스컵이 첫 프로 대회 개최인데 코스 조성 관리 상태가 뛰어나 출전 선수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맥CC는 단순한 골프장은 아니다. 임기주 회장이 1997년 설립한 한맥테코산업이 이를 방증한다.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게 주 사업인 한맥테코산업의 주 목적은 골프장이다.

임 회장은 한맥테코산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만들고 싶었다. 1996년 소백산 주변 개발을 구상한 뒤 2003년 한맥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6년 경북 예천군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아 2008년 한맥CC를 완공했다.

한맥CC의 아이덴티티는 경북 예천군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게 주 목적이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행복지수를 주기 위해 골프장 위치를 선택했는데 그곳이 바로 배산임수였던 것.

임 회장은 "크게는 골프대중화와 골프장 업계 전체의 발전이 목표다. 한맥 CC를 통해 예천지역의 경제에 활력이 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다저스, 3경기 연속 팀 완봉승 MLB 가을야구 사상 3번째
▲이라크전 앞둔 홍명보 "어떤 식으로든 결과 가져와야" /사진 뉴시스

▲'홍명보호 상대' 이라크, 용인 아닌 다른 경기장 요청...AFC가 거절
▲키움, 2025시즌 코치진 구성 완료...정찬헌은 불펜코치



▲6경기 21타수 1안타...해결사 아닌 블랙홀 된 LG의 4번 타수
▲WKBL 신임 사무총장에 안덕수 전 KB 국민은행 감독 /사진 뉴시스